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자기성찰이
점복에 대한 태도 및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도민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양 정 은

2015년 8월

<국문초록>

자기성찰이
점복에 대한 태도 및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도민을 중심으로-

양 정 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민의 점복에 대한 태도와 상담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기성찰이 점복에 대한 태도 및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점복에 대한 태도와 상담에 대한 태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점복에 대한 태도 및 상담에 대한 태도에 대한 자기성찰의 영향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 중인 20세 이상 성인 450명을 대상으로 2015년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성실히 응답한 363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로는 점복에 대한 태도 측정을 위해 박은경(2008)의 점복에 대한 태도 척도(총 31문항, 4점 Likert)를, 상담에 대한 태도 측정을 위해 남숙경(2006)의 상담에 대한 태도 단축형 척도(총 10문항, 4점 Likert)를 사용하였다. 자기성찰의 측정을 위해서는 황

주연(2011)의 자기성찰 척도(총 20문항, 5점 Likert)를 사용하였고 위 세 가지 기존 척도 외에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점복 및 상담에 대한 과거 경험 및 미래 의향 여부를 묻는 질문을 추가로 삽입하여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for Windows 22.0를 통한 빈도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점복에 대한 태도와 상담에 대한 태도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므로 선행 연구에서 고찰되었던 점복문화 배경의 내담자를 위한 상담전략을 내담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상담의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원리를 유지하며 내담자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점복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이고 점복자와 같은 상담자를 기대하는 내담자일지라도, 궁극적으로 필요한 책임인식과 자기표현 등을 늘려가야 할 것이다.

둘째, 점복에 대한 태도에는 자기성찰이 부적 영향을 미치고, 상담에 대한 태도에는 자기성찰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에 대한 탐색과 이해를 비교적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복에 대해 호의적이고, 자신에 대한 탐색과 이해를 비교적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상담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그러므로 자기성찰이 낮은 이들도 상담을 추구하는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자기성찰을 증진할 방안을 제공하고, 상담에 대해 다양한 홍보와 접근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상담을 찾은 이들에게는 자기성찰을 더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상담자들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3. 용어의 정의	5
가. 제주도민	5
나. 점복에 대한 태도	5
다. 상담에 대한 태도	5
라. 자기성찰	6
II. 이론적 배경	7
1. 자기성찰	7
가. 자기성찰의 개념	9
나. 선행 연구	10
2. 점복에 대한 태도	11
가. 점복의 개념	11
나. 점복과 상담	14
다. 점복과 자기성찰	15
라. 제주도민과 점복	16
마. 선행 연구	20
3. 상담에 대한 태도	22
가. 상담의 개념	22
나. 상담에 대한 태도	23
다. 상담과 자기성찰	24
라. 제주도민과 상담	25
마. 선행 연구	27
4. 가설	30

Ⅲ. 연구방법	31
1. 연구대상	31
2. 연구절차	31
3. 연구도구	31
가. 점복에 대한 태도 척도	32
나. 상담에 대한 태도 척도	33
다. 자기성찰 척도	34
4. 자료처리 및 분석	35
Ⅳ. 연구결과 및 해석	36
1.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36
2.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 평균 및 표준편차	40
3. 점복에 대한 태도와 상담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관계	41
4. 자기성찰이 점복에 대한 태도와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44
Ⅴ. 논의 및 결론	45
1. 논의	45
2. 결론	51
참고문헌	54
Abstract	64
부록	66

표 목 차

표 III-1. 점복에 대한 태도 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32
표 III-2. 상담에 대한 태도 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34
표 III-3. 자기성찰 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35
표 IV-1.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37
표 IV-2. 점복과 상담의 과거 추구 경험	38
표 IV-3. 점복과 상담의 미래 추구 의향	38
표 IV-4. 점복 및 상담 추구 의향이 있는 분야	39
표 IV-5.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평균 및 표준편차	40
표 IV-6.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42
표 IV-7. 점복에 대한 태도와 자기성찰 간의 상관관계(편상관)	45
표 IV-8. 상담에 대한 태도와 자기성찰 간의 상관관계(편상관)	47
표 IV-9. 자기성찰이 점복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47
표 IV-10. 자기성찰이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4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헤르만 헤세는 노래하였다.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네.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지(There is no duty in life except the duty of being happy. It is our only reason for being in this world.)(임봉영, 2005).”

그러나 현대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우리나라 성인 만 20~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행복 조사’를 진행한 결과,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6%, 일생 중 한 번 이상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고 싶은 문제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에 달했다(김태열, 2015). 최근의 심리에 대한 관심과 열풍 또한 심리적 불편감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김정수, 2010), 한국인들의 현실과 행복 사이에는 그만큼 괴리가 존재한다.

사람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행복해지고 싶을 때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전문적 조력과정인 바로 상담이다(노안영, 송현중, 2006;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 2012). 상담은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와 심리적 어려움으로 타고난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는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과정”이다(천성문 외, 2015). 큰 문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현재보다 나은 발달과 성장을 지향하기 위해 상담을 찾을 수 있다(신연희, 안현의, 2005).

그러나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날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담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이미경, 2010; 이민지, 손은정, 2007). 특히 한국사회에서 개인이 상담을 이용하는 비율은 매우 저조(유성경, 이동혁, 2000; 이강미, 2008)하고 상담을 찾는 것이 아직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다(성수진, 유순화, 2006). 이처럼 상담에 대한 필요성이 있음에도 상담을 찾지 않는 ‘서비스 갭(service gap)’ 현상(Brinson &

Kottler, 1995; Cramer, 1999; Kushner & Sher, 1991)을 이해하고 줄이기 위해 ‘상담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한편, 예로부터 사람들이 애환을 달래기 위해 찾아온 ‘한국식 인생상담’으로 ‘점복’, 흔히 말하는 ‘점(占)’이 있다(김영재, 2004; 나주연, 2009; 오수성, 1997; 장성숙, 2005; 홍수연, 2005). 사람들이 점복을 찾는 이유는 불안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등(고진석, 2013; 김영재, 2004; 이부영, 2012; 조성윤, 현혜경, 2001; 홍수연, 2005) 상담을 찾는 이유와 일치할 뿐 아니라(나주연, 2009)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도 사주와 택일을 제외하고는 가족, 연애, 결혼, 건강 등 공통적이다(김배성, 2004; 조성윤, 현혜경, 2001). 실제로 점은 소비자가 힘들 때 택할 수 있는 서비스업으로 상담과 함께 언급되며(고미숙, 2012; 김영재, 2003; 이정은, 2010;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 2012), 합리성을 강조하는 현대에도 그 수요와 공급이 늘고 있다(김영재, 2003; 박은경, 2008; 조성윤, 현혜경, 2001).

한국인의 점복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특성에 맞추어 상담의 효과와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점복문화 배경의 내담자를 위한 전략(김영재, 2004)과 점복문화를 중심으로 한 토속신앙과 상담의 관계(장성숙, 2005)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앞의 연구들에 따르면 내담자들은 자기개방의 불필요성, 단기간에 걸친 문제해결 가능성, 적은 비용과 편하다는 인식 등(김영재, 2004)을 점복의 장점으로 꼽았다. 또한 그런 내담자들에게 한국식 상담자는 웃어른처럼 문제해결 방안을 지도하며 적극적으로 의존욕구에 부응할 것이 제안되었다(장성숙, 2005).

그러나 상담은 충고 이상의 전문적 활동으로, 상담자는 치료와 문제해결을 조력하는 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개인적 발달과 성장을 돕는 데에 가치를 두고 노력해야 한다(노안영, 송현중, 2014). 소극적인 내담자의 자세는 상담과정에서도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후 삶의 과정에서도 상담자에게 계속 의존하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노안영, 송현중, 2014). 점복문화 배경의 내담자임에도 상담에 대한 태도는 점복에 대한 태도와 다를 수 있으니 두 태도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내담자가 상담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되었다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초기부터 상담의 원리 속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상담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연구할 수 있다(오현수, 2012). 합리적 선

택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주어진 대안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 후, 그중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한다(강준만, 2007). 그럼에도 기존의 연구들은 상담이라는 상품만을 개별적으로 다뤘다(이강미, 2008; 이민지, 2006; 장윤진, 2012). 즉, 기존 상담에 대한 태도의 연구들(김범선, 전윤경, 전진실, 2008; 이민지, 2006; 장윤진, 2012)은 상담에 대한 태도가 아무리 긍정적일지라도 다른 대안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고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여기는 한 실제적 수요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이 고려되지 않았다. 특별히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지 않는 한 상담은 현재까지처럼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는 대안(오현수, 2012; Hinson & Swanson, 1993; Maniar, Curry, Sommers-Flanagan, & Walsh, 2001)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의 선택에 만족한다면 상담으로의 접근 자체는 애초에 차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점복에 대한 태도와 상담에 대한 태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점검하고, 각 태도의 차이를 구분 짓는 변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전문적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내담자들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누가 나에게 가장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등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다(김주미, 유성경, 2002). 또한 상담은 피하고 싶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루어야 하기도 하고(오현수, 2012; 이현림, 강은희, 2004) 비교적 장기간 임해야(이장호, 2011) 하는 등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자 하는 동기나 필요성, 답답한 마음이 높아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신연희, 안현의, 2005; 오현수, 2012). 즉, 부담 없이 손쉽게 때로는 재미로 찾는 점복과 달리 상담은 ‘자기를 알고 싶거나 자기이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발전하고 변화하고 싶은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모색하는 전문적 도움과정, 즉 ‘자기성찰’을 수반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오현수, 2012).

자기성찰이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자기내면과 대인관계에서 일어난 감정을 자각하고 조절하며, 객관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본성을 깨닫는 과정이다(황주연, 2011). 이는 심리적 불편감이 증가할 때 생기는 현상이면서도, 자기 자신으로서 삶을 더 건강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데에도 필수적인 과정이다. 자기성찰의 결과로서 자신을 잘 알고,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행

복(노안영, 송현중, 2014)의 첫걸음이자 필수조건(정업, 2011; Hecht, 2012)이기도 하다. 또한 상담에 임하면서도 자기성찰에 높은 동기를 지니고 책임과 적극성을 띠며 임하는 것은 상담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노안영, 송현중, 2006; 이장호, 2011; Seligman, 2006)을 미치므로 선순환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자신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 자기성찰 정도가 점복에 대한 태도와 상담에 대한 태도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점복에 대한 태도와 상담에 대한 태도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점복 문화 배경의 내담자를 위한 한국식 상담’, 즉 내담자의 의존욕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지시적 상담을 모든 내담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 점검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 다른 목적은 점복에 대한 태도 및 상담에 대한 태도에 자기성찰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를 통해 내담자에 따라 한국식 상담 전략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의 참조 변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각 도움 추구자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여, 상담소를 이미 방문한 내담자와 방문 의사가 적은 잠재 내담자들 모두에게 상담이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점복에 대한 태도와 상담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점복에 대한 태도 및 상담에 대한 태도에 대한 자기성찰의 영향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가. 제주도민

본 연구에서 제주도민은 2015년 2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성인을 지칭한다. 본 연구는 2013년부터 시행된 민법 제 4조에 따라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태어난 년도부터 1살이 되어 연나이로 계산하는 우리나라 관행에 따라 응답자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20대부터로 구분을 표기하였다.

출신지가 타 지역인 경우에도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으면 제주도민으로 간주하였다. 토박이와 도래인이 합쳐서 제주도민이 형성되었고 그 둘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긴밀하다는 현길언(2001)의 의견을 참고하였다.

나. 점복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 ‘점복’이란 김만태(2008)의 정의를 따라 “인간이 자신의 상황을 보다 유리하게 하고자 미리 조짐으로부터 신의(新意)를 알아내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며, 그 종류나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별자리 운세, 타로점과 같이 접근이 용이한 것부터 신을 불러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신무예 의한 신점까지 다양하게 포함하기로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점복에 대한 태도’란 ‘점복에 대한 평가’, ‘점복에 대해 일관되게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경향’을 말하며(Ajzen, 1975)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박은경(2008)이 개발한 ‘점복에 대한 태도 척도’에 응답자들이 답한 수치의 평균을 의미한다.

‘점복 추구’란 미래에 대한 어떤 징조를 미리 판단하고자 하는, 즉 점복을 추구하는 모든 의도 및 행동을 의미하기로 한다.

다. 상담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 ‘상담’이란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와 심리적 어려움으로 타 고난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는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과정(천성문 외, 2015)”을 의미한다.

이어서 ‘상담에 대한 태도’란 ‘상담에 대한 평가’, ‘상담에 대해 일관되게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경향’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Fisher, Farina(1995)가 개발한 ‘상담에 대한 태도 단축형 척도(ATSPPH-SF)’를 유성경(1997)이 번역하고 신연희(2004)가 수정한 것에 대해 응답자들이 답한 수치의 평균을 의미한다.

설문지에는 ‘상담’과 ‘전문가’란 용어에 대해 ‘심리치료’, ‘상담’, ‘정신치료’ 등의 구분이나 부연설명을 두지 않고 해당 용어에 대해 응답자가 판단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심리적 어려움이나 자기이해, 문제해결 등을 위해 택하는 도움으로서 미래에 대한 정보를 참고로 하는 점복과 심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담이라는 두 분야를 폭넓게 비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심리치료나 상담, 정신치료 등의 구분이나 언급 자체를 두지 않고 연구를 진행한 선례로 이선희(2007)의 ‘한국인의 정신건강 도움요청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있다.

라. 자기성찰

본 연구에서 ‘자기성찰’이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자기내면에 일어난 감정을 자각하고 관찰하고 조절하며,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들에 대해 주의집중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자기 본성을 깨닫는 과정”을 의미한다(황주연, 2011).

조작적 정의로 본 연구에서의 ‘자기성찰’, 혹은 ‘자기성찰 정도’는 황주연(2011)이 개발한 자기성찰 척도에 응답자들이 응답한 수치의 평균을 뜻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점복에 대한 태도와 상담에 대한 태도의 관계, 그리고 점복에 대한 태도 및 상담에 대한 태도에 대한 자기성찰의 영향에 대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연구하게 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각 변인인 점복, 상담, 자기성찰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해 봄으로써 본 연구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자기성찰

가. 자기성찰의 개념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기소당해 재판을 받을 때 남긴 말은 “성찰되지 않은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라고 한다(Crane, T., Prinz, J., Morton, A., Cottingham, J. G. Almond, B. & Wolff, J, 2004/2008). 고대 철학자가 삶의 가치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강조한 ‘성찰’이란 무엇일까?

영문표현으로 ‘reflection’, ‘reflective thinking’, 그리고 ‘introspection’ 등이 우리말로 ‘성찰’이라 주로 번역된다. 데카르트의 저서 ‘meditation’도 성찰이라 번역되었다. 데카르트는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쉬운 ‘자신’이란 개념에 대해서도 그것이 어찌서 존재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며 삶에 관한 새로운 합리주의 이론의 토대를 쌓았다(Crane, T. et al, 2004/2008). 이렇듯 성찰은, 선입관과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우리가 매우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을 의심해 봄을 의미한다(Crane, T. et al, 2004/2008), 철학적 반성이자 나아가며 질문을 던져보는 과정(Crane, T. et al., 2004/2008), 더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경험하는 일 중에서 적은 것 까지도 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조수철, 2000). 이렇듯 성찰은 당연한 것에도 질문을 던지며 진리를 탐구하려는 삶의 진실한 자세이다.

교육학에서는 Dewey(1933)가 인간의 사고에 대해 논의하면서 ‘성찰(reflective

thinking)’을 학문적 용어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그는 성찰을 ‘마음속에서 주제에 대해 다르게 돌려서 생각해보며 진지하고 연속적으로 사고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성찰은 단지 생각의 나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연속적이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대한 예측을 포함한다(김나현, 2013). 과거의 것만을 곱씹는 것이 아닌 성장과 발전 지향적 사고인 것이다.

좀 더 일반적인 의미를 찾으면, 국어사전에서 성찰은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때 반성한다는 것은 ‘마음의 상태나 움직임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것’이자 ‘마음과 마음의 상태를 분명하게 깨닫는 노력’을 의미한다(이재용, 2008). 이로써 성찰은 다양한 삶의 문제 중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으로 좁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자기’란 무엇인가? ‘자기’란 국어사전적 정의로 ‘그 사람 자신’이라 간단히 풀이된다. Yuji(2015)는 ‘자기’를 ‘전체로서의 자신’이라 풀이하였다. 즉, ‘자기’란 내면과 외면의 구분을 둘 것 없이, 스스로가 인식하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 전체를 일컫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성찰’이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들여다보며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느끼는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자기성찰이란 개념은 동양에서도 오랜 철학과 삶의 지혜로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손나운, 2014), 주로 자기를 갈고 닦아 나가는 자기수양이나 공부 방법으로 그 의미가 사용되었다(황주연, 2011). 예를 들어 공자의 ‘극기복례’에서 ‘극기’에 해당하는 ‘자신을 극복한다’라는 말은 사사롭게 일어나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겨낸다는 의미로(백민정, 2007), 어떠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난 감정이나 생각에서 한 발 물러나 자신의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이다(황주연, 2011).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조절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동양철학의 자기수양과 관련해 늘 등장하는 문자가 ‘닦을 수’자이다(박현, 1999). ‘닦다’는 ‘다시(하다)’에서 갈려 나온 말로 ‘처음으로 돌아가다’, ‘새롭게 하다’는 말이다. 즉, 자기를 닦는다는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다 크고 높게 밝게 되는 일’ 즉 스스로가 스스로를 고쳐 바로잡음으로써 새로운 나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다산 정약용 또한 자기성찰을 강조한 학자로, 다산 철학에서

자기성찰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한다(이재용, 2008).

보다 최근 개념으로, 미국의 Gardner(1999)는 인간지능을 지능검사를 떠나 좀 더 다르게 개념화하며 8가지 지능을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가 자기성찰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이다. 자기성찰지능이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접근, 감정들을 구별하는 능력,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안내하는 수단이다(Gardner, 1999). Gardner(1999)는 이것이 본능적인 동인을 만족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 이러한 능력은 인간에게 점차 중요해질 것이라 주장하였다.

자기성찰지능은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것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모든 고찰을 대표하는 지능이다. 이 지능이 높은 사람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잘 기울여 자신의 좋고 싫음,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잘 표현한다. 또한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며 자신의 목표를 위해 자기반성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문용린, 2009). 즉, 자기성찰은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개념인 것이다(황주연, 2011).

자기성찰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진지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자신의 삶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경험 중에서 자신과 관련해 느끼는 부분을 자기성찰지능 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그 최종 목표는 자신과 사회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약점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고도의 자아감을 형성하는 것이라 하였다(문용린, 2009).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타인과 사회에 도움이 되기 어렵고, 반대로 자신을 이해한 만큼 건강한 삶을 살며 타인과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제대로 알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고 그 순간 불행한 상태를 빠져나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간다(서영채, 2013). 자기성찰을 통해 자기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거치지 않고서는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그 깊이에도 제한이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자기성찰이란 자기내면에 일어난 감정을 자각하고 관찰하고 조절하는 과정이며,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들에 대해 주의집중하고, 객

관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자기 본성을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황주연, 2011).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들여다보려 노력하는 진지하고 겸손한 삶의 자세이며 보다 더 성숙한 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우리가 영위하는 삶은 자신이 선택한 삶이 아닐 때에 문제가 된다. 그것은 각자의 삶이 스스로의 요구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삶, 즉 주체적 삶이 아닐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현길언, 2001). 주체적 삶이 아닌 삶들은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므로 현대의 개개인이 지닌 자기성찰 정도를 점검하고 그것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또한 보다 자기성찰에 효과적인 도움 수단을 선택하도록 하여 그 선순환 효과를 높이는 것 역시 자기성찰의 부재로 인해 오는 각종 사회문제와 부작용을 감소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나. 선행연구

자기성찰은 동서양의 철학사를 통틀어 고대부터 부단히 언급되며 다루어져 온 내용으로 그 연구 범위가 무척 넓고 다양하다. 그중 본 연구에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론적 배경 부분에서 다루었으므로, 선행연구 부분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황주연(2011)의 자기성찰 척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연구를 정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기존에 자기성찰과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던 척도들은 자기성찰이 자기에 대해 생각하면서 발전과 변화의 방향성을 갖는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측면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 없이 고통과 증상에 대해 수동적이고 반복적으로 초점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었다. 또한 타인과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호의존적인 측면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황주연, 2011).

그런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황주연(2011)은 자기성찰 척도를 개발하였고 같은 연구에서 자기관과 자기성찰, 안녕감간의 경로모형을 검증하였다. 자기성찰이 ‘자각→탐색→이해’의 과정을 거친다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자기성찰 예비척도를 자기자각, 자기탐색, 자기이해, 타인자각, 타인탐색, 타인이해의 6요인으로 구성하

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자각 요인과 탐색 요인이 혼재되어 변별이 되지 않았다. 최종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낸 4요인으로 척도를 완성하였다.

이어서 자기성찰을 자기영역 성찰과 관계영역 성찰로 나눈 후 각 영역 성찰의 수준(고집단, 저집단)에 따라 안녕감의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자기영역 성찰보다는 관계영역 성찰 수준이 높을수록 안녕감 수준이 높았다. 이는 관계지향적인 한국문화에서 타인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안녕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으로 이해되었다. 또한, 자기관과 안녕감의 관계에 자기성찰이 매개하는 과정을 구조방정식 모델링 방법을 통하여 분석했는데, 독립적 자기관은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자기영역 성찰과 관계영역 성찰을 차례로 거쳐 안녕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관계영역 성찰을 매개로 안녕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혜(2013)는 자기성찰 척도를 이용하여 자기성찰, 자기효능감, 학업성적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성찰이 잘되는 학생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성적이 좋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 자기성찰이 잘되는 학생일수록 학업성적이 좋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성찰은 심리적 안녕감 및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관련된 변인으로 추측할 수 있다.

2. 점복에 대한 태도

가. 점복의 개념

점복(占卜)이란 흔히 ‘점(占)을 치다’, 또는 ‘점(占)을 보다’라고 말할 때의 그 ‘점’을 일컫는 학문적 용어로, “인간이 자신의 상황을 보다 유리하게 하고자 미리 조짐으로부터 신의(神意)를 알아내는 일련의 행위(김만태, 2008)”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점(占)’과 ‘복(卜)’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두 단어가 합성되어 점복이 되었다고 한다(김태곤, 1995). ‘복(卜)’은 ‘거북 껍질이나 짐승 뼈를 불로 구울

때 갈라지는 조짐’을, ‘점’은 ‘그 조짐을 보고 앞날의 좋고 나쁨을 알아내어 말한다’는 뜻(김만태, 2008에서 재인용)을 지닌다. 이러한 점복은 어느 시대, 어디서나 널리 존재해 온 인류의 보편적 문화현상이며(김만태, 2008) 점복의 역사는 인류 생활과 더불어 찾아볼 수 있고 인류의 문명은 점복의 발달과 더불어 진행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정승안, 1998). 인간만이 가진 예지욕(김만태, 2008)이 그 원동력이 된 것이다.

정승안(1998)은 점복을 협의와 광의로 정의했다. 좁은 의미로 점복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자 할 때 신비로운 존재에 의탁해서 판단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넓은 의미로는 미래세계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고자, 어떤 사건이나 일의 길흉화복을 판단하고 예측하고자 하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판단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이렇듯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의 판단을 신비스럽고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탁하고 해석해서 주체의 결단을 이끌어내는 개인적인 판단행위임과 동시에 사회적인 행위라는 의미에서 매우 복잡적이며 다의적인 개념으로 쓰인다고 덧붙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점복은 인간의 생활에 따르는 모든 조짐을 신비적인 방법으로 미리 알아내어 인간의 생활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정보(김태곤, 1995)이자, 미래에 대한 예지적인 앎을 통해서 발생할지도 모를 불행을 미리 막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는 인간적인 의지가 반영된 독특한 신앙형태(김종대, 1996)이다. 즉, 점복의 목적은 단순히 ‘조짐을 통해 신의를 미리 알아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알아낸 신의의 길흉에 대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람의 심신이 넉넉해지며 즐겁게 되는 것’이다(김만태, 2008). 점복은 인간이 불안을 줄이고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 중 하나인 것이다.

점복의 종류는 나라마다 다양하고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문창우, 2008; 박은경, 2008; 정승안, 1998).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점복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신점(神占), 작괘점(作卦占), 몽점(夢占), 작명(作名), 해명(解明), 풍수점(風水占), 관상(觀相), 수상(手相) 등이 있다(문창우, 2008에서 재인용). 신점은 신이 내린 무당 등이 하는 영점(靈占)이고, 작괘점은 『주역(周易)』의 괘로 운수를 풀어나가는 것, 몽점은 꿈해몽, 풍수점은 묘자리를 새로 잡거나 이미 자리 잡은 집터나 묘자리의 길흉을 보아주는 것, 작명과 해명은 성명의 한자음과 획수를 음양오행(陰

陽五行)의 원리로 푸는 것(문창우, 2008), 그리고 관상과 수상은 얼굴과 손금 등의 생김새를 통해 점을 치는 것을 말한다. 최근의 점복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운세나 사주풀이와 상담은 물론 점집에서의 카드결제, 광고와 굿 절차의 변경 등 점차 시장상황에 발맞추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박은경, 2008; 정승안, 1998; 조성윤, 현혜경, 2001). 무엇보다 성행하고 있는 분야는 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타로점이다. 타로점은 간이시설이나 카페 등의 형태로 접근성이 뛰어나며 가격도 3,000원에서 5,000원이면 볼 수 있는 등 접근성과 재미 모두를 갖춘 점의 새로운 종류이다. 이처럼 종류가 다양해지며 접근기회는 증가하는 것이다(박은경, 2008).

점복행위는 한국의 일반 대중 사이에서 대단히 오래되고 광범위한 전통이지만,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없어져야 할 폐습으로 인식되어 오기도 했다(조성윤, 현혜경, 2001).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점복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다시 대중들에게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기독교 측의 점복을 향한 거센 반발도, 한때는 그저 미신으로 치부했던 과거에 비해 오히려 그 저항이 완화된 증거라는 의견도 있다(조성윤, 현혜경, 2001).

점복이 위와 같이 비합리적인 것으로 무시되거나 타파되는 등 부정적 시각을 받고 있다면(김영재, 2003; 조성윤, 현혜경, 2001; 한경선, 2003)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을 이해하는 소중한 자료인 만큼 더욱 깊이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전통을 발전시키기 위한 길이라는 의견도 있다(한경선, 2003). 또한, 과학이 발달하고 합리성이 중시되는 현대 사회에도 계속해서 점복 추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 자체가 그 기저의 심리와 사회 현상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의견이 있다(강정환, 1998; 박은경, 2008; 정승안, 1998; Edelman, 2008). 옳고 그름이나 신뢰성, 합리성의 여부를 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복을 찾고 있다는 점 자체가, 이 혼란되고 모순된 시대의 거부할 수 없는 자화상인 것이다.

한편, 점복이라는 분류 안에 사주학을 포함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의제기의 여지가 있다. 사주는 통계를 바탕으로 한 과학이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역리점복의 설명과 예측방식은 통계적 표현을 취하지 않고 개인의 과거와 미래를 결정론적으로 말해준다는 점에서 점복과 같은 기제를 취한다(강정환,

1998). 또한 ‘상담’을 심리치료, 정신치료 등과 구분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불안을 달래고 위안을 받고자 하는 큰 틀로서의 점복을 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주를 점복의 틀 안에 속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나. 점복과 상담

예로부터 사람들의 애환을 달래주며 한국식의 상담 내지는 심리치료 기능을 해온 무속의 대표적 행위가 점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김영재, 2004; 오수성, 1997; 장성숙, 2005; 조성윤, 현혜경, 2001).

점복문화는 인간을 관계 속에서의 존재로 보고, 현세 중심적 관점을 지녔으며, 해결방안으로 관계회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담과 유사성을 보인다(장성숙, 2005). 점복을 찾는 이들과 상담을 찾는 이들 모두 불안할 때, 심리적 고통감이 있을 때, 행복해지고 싶을 때, 문제해결에 대해 조언을 얻고 싶을 때 찾는 양상을 보이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분야 또한 많은 부분 일치하고 있다.

이처럼 점복과 상담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일종의 ‘서비스업’으로서 공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움 요청 시에 즉각적 문제해결을 바라고 자기 노출을 꺼리는 등의 특성이 있어 상담에서도 그런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연구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상담을 찾는 비율은 매우 저조하고 보편적인 현상이 아닌 반면(성수진, 유순화, 2006; 유성경, 이동혁, 2000; 이강미, 2008), 점복은 시대가 변함에도 그 양상을 달리하며 성행하고 있다(고진석, 2014; 김선호, 2004; 박은경, 2008; 조성윤, 현혜경, 2001). 반면, 상담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에 찾는 도움요청의 수단이다(Hinson & Swanson, 1993; Maniar, Curry, Sommers-Flanagan, & Walsh, 2001). 점복은 보다 친근하고 접근성이 좋으며 자기노출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가격이 낮은 등 상담의 회피요인이 접근요인으로 작용하며 적극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의존욕구에 부응하고 있다(김영재, 2003).

상담자와 점복자에 대한 인식을 보면 무당 사이에서는 ‘머리에 떡물 적은 무당이 영험하다’는 속설이 있어 오히려 학력이 낮은 것이 신의 이야기를 듣는데 더욱 좋다고 이야기된다(조성윤, 현혜경, 2001). 반면, 상담사는 중산층 고학력자인

경우가 많다는 연구가 있다(장성숙, 2005).

무엇보다, 사람들이 이러한 점복을 상담보다 먼저 찾을 시에, 그를 통해 만족을 얻는다면 상담으로의 진입은 원천적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 점복을 찾는 사람들은 실제로, 주위에 ‘상담할 사람이 딱히 없어서’라고 밝히기도 한다(이정은, 2010).

다. 점복과 자기성찰

사람들이 점복을 찾는 이유는 다양하다. 불행을 예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행복해지고 싶어서(홍수연, 2005), 또한 ‘자신을 알고 싶어서’ 등이 그 이유가 된다(김영재, 2004). 그리고 많은 점복자들 또한, 점복 추구를 통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 ‘자신을 알 수 있다’고 강조한다(최정안, 2003).

김영재(2004)는 점복행위를 통해 참여자가 체험한 내용의 구조와 과정을 생로병사에 직면하여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쉽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다는 점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하여 점복자를 찾은 뒤 점복 내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거나 취사선택 또는 거부하는 것으로 정리하기도 하였다. 이를 토대로 참여자는 인지적 통찰을 통해 숨겨진 자기를 깨닫고, 부정적 감정에서 놓여나며, 자기답게 살아보는 행동적 변화를 시도하고 초월적 의미를 추구하는 변화를 경험한다고 덧붙였다. 이 때, 인생과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되어 운명이나 사주팔자에 연연해하지 않는 자유로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점복내용을 참조체계로 활용하거나 종교로 받아들이고 갈등상태에 놓이는 등의 다양한 형태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점복은 상담과 달리, 어떤 상황과 행동의 원인과 책임의 소재를 도움요청자의 내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두고, 문제가 일어나게 된 상호작용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외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돕는 이와외의 관계에 대한 체험보다는 상거래형식의 단발성을 띠는 차이점이 있다(장성숙, 2005). 점복 또한 자신의 운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 준다는 점은 있으나 상담처럼 보다 꾸준하고 깊은 자기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라. 제주도민과 점복

제주도는 ‘신들의 고향’으로 불릴 만큼(유홍준, 2012; 주장현, 2012; 한경선, 2003) 영적인 부분이 활성화된 지역이다. 제주 무속 사회에서 일컬어지고 있는 신의 수는 1만 8천이 넘는다(유홍준, 2012; 주장현, 2012; 한경선, 2003).

제주도는 주위 400리, 인구 50만으로 목포에서 142km 떨어진 먼 주변지역의 섬이다. 이러한 특징은 제주도가 한국 문화의 한 지방형을 보존 가능하도록 한 중요 요건이면서 한편으로는 생활면에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척박할 수밖에 없었던 일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강지희, 1995). 이러한 환경조건에서 살아가는 제주인들에게 무속은 민간신앙으로서 생활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다(강지희, 1995). 바다를 삶의 공간으로 인식하기보다 육지로 나가는 데 장애가 되는 장애물로 인식한 반면 산을 삶의 터전으로 의지해 살아오며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한라산신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였다(현길언, 2001).

점복을 무속이라는 큰 문화적 틀 안의 구체적 행위로 본다면, 한반도에서 한국 무속을 고찰하며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제주도의 심방이다. 심방이란 무당에 해당하는 무격을 일컫는 제주도의 호칭이다(강지희, 1995). 제주도의 무당은 점을 치는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다. 점을 치는 것은 신들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신을 공들여 모셔 와 의사를 묻는 것이다. 제주도 무속의 특징은 다신 다령하여 전국적으로 무교가 일종의 중앙집권적 체계로 고급종교화 되는 과정에 끼지 못하고 별도로 신당을 인정받아 심방의 계층이 생겨났다(강지희, 1995). 이 심방은 ‘일안어른’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데 이는 ‘사물을 아는 어른’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강지희, 1995).

제주도 산에는 산신당(山神堂), 바다에는 해신당(海神堂), 마을에는 본향당이 있어, 2008~9년에 시행한 ‘제주 신당 조사’에 따르면 모두 554곳으로 추산되고 본향당은 현재 2010년 당시 300곳 남아 있었다(유홍준, 2012). 제주도에는 마을마다 본향당(本鄉堂)이라는 신당(神當)이 있어 자애로운 할머니(할망)이자 심신의 상담자 역할을 해 왔다(유홍준, 2012). 예로부터 여인들이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을 신고하고 소문 날 염려 없이 자기 이야기와 고민을 털어놓았던 것이다.

또한 제주도민들은 이 본향당의 ‘본향당신’이 마을의 수호신이 있어 제주도민

들은 본향당에 가 심방의 본풀이를 들었다. ‘본’은 ‘근본·본원·내력’을 의미하고 ‘풀이’는 ‘설명’을 뜻한다. 즉, 신의 근본을 풀이하고 설명한 ‘살아있는 신화’로 자연, 일반적 관념의 신, 마을의 수호신과 집안 및 씨족의 수호신 이야기를 아우르며 조상들이 살아온 내력을 신화로 만들어 놓은 민중의 역사이다(주강현, 2012).

문무병(1999)은 ‘제주의 무속은 민족종교로서 무교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타 종교처럼 ‘나의 종교는 무교다’라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민 자체가 종교라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제주인이 곳을 통하여 전승해 온 민간신앙이라는 점에서’ 그렇다고 하였다. 제주도 곳의 과정에는 제주인의 종교심리와 상징체계가 포함되어 있으며 무속신앙 체계 속에도 다양한 형태의 민간신앙이 내포되어 있다(문무병, 1999). 이러한 무속신앙은 기독교와 같은 기성종교에 의해 탄압을 받기도 하였으나 탄압의 주체였던 이형상 목사가 제주를 떠나자마자 신당과 곳이 바로 복원되는 등(주강현, 2012) 그 뿌리는 깊고 강하다.

이러한 믿음에 따라 제주에서는 일 년간 세상을 관장하던 구관이 당해의 임무를 끝내고 하늘로 돌아가 신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일컫는 ‘신구간’이라는 기간이 있어 이사 등의 ‘동티날 일(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굳이 건드려 스스로 해를 입는 일)’을 재빨리 진행하는 풍습이 있기도 하다(주강현, 2012).

제주도는 지리적 자연적 악조건 내에서 서로 결속을 강화하며 자연, 외세, 생활과의 고통에 대항한 싸움으로 생존을 지탱하여 왔으므로 어느 지역보다 공동체성이 강하게 유지되어 왔다. 이는 생산의 토대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 생산의 공동체로서의 수눌음 집단이 그 정신적 토대를 강화시켜주는 무속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문무병, 1999). 제주사회에서는 무속신앙이 당곳을 통하여 공동체의 일탈을 방지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 왔다.

제주지역에는 점복집이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조성윤, 현혜경, 2001). 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며 시작된 경제 불황이 한 원인이 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기존의 합리화 사회에 대한 반증으로 점복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조성윤, 현혜경, 2001).

조성윤, 현혜경(2001)이 164개소를 면접대상으로 선정해, 그 중 27%에 해당하는 45개소를 면담에 성공하여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점을 보러 가는 고객층은 전 연령층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반면 선호하는 점의 구분은 연령대별로 명

확하다고 나타났다. 20~30대는 연애, 직업, 궁합, 30~40대는 진급, 사업, 작명, 불륜, 가정문제, 5~60대는 사업, 치병, 택일 등에 각각 수요를 나타냈다. 성별로 따지면 여성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부부가 같이 찾는 경우와 함께, 경기침체로 증가하는 불안 심리를 점복신앙으로 해결하려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의 경우는 집안에 우환이 겹칠 때 특별히 찾는데 비해, 목사, 신부, 고위직 공무원, 교수, 의사 및 검사 등 생활에 여유가 있는 층은 주기적으로 ‘용한 점집’을 찾아 진급, 사업 등에 대해 적극적 상담을 청한다고 한다. 이들은 ‘단골’로 불리기도 하며 1년에 평균 4~5번에서부터 한 달에 10번 이상을 오는 경우도 있었으며 전화 상담까지 포함한다면 그 횟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측된다.

예약을 해야 만날 수 있는가 하면 오전만 영업하고 문을 닫는 경우도 있으며 잘 되는 집의 경우 하루 수입이 1백 만 원을 넘는 것이 보통이라고 전해진다(조성윤, 현혜경, 2001). 제주지역에서는 총 40여명의 점복자들이 제주세무서에 등록되어 있으며(2015 확인 필요) 세무서 등재에 빠진 곳도 있기 때문에 그 수는 이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윤과 현혜경(2001)은 제주지역에서 점복 영업이 활발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이유로 들고 있다. 첫째, 한라산 일대를 기도처로 삼을 수 있다는 것, 둘째, 점복 신앙이라는 문화가 제주도민에게 익숙하다는 것, 셋째, 점복 신앙에 대해 별로 전문성이 없어도 들통 날 염려가 적다는 것, 넷째, 점복자들이 무당이 되기까지의 고달팠던 인생사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전통적인 점복 신앙의 구조가 재편되는 가운데 특히 제주지역은 그 다양성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다(조성윤, 현혜경, 2001). 한편으로 제주도의 큰곳은 본토에서 이입·수용되었고 섬 지방에는 일반적으로 고문화(古文化)가 잔존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무속이 고행(古型)일 것이라는 점, 그리고 제주도 큰곳에서 불리지는 신화들이 본토의 민담·전설·소설 등으로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도의 큰곳은 우리 민족의 본래적인 곳의 원형에 가까울 것(한경선, 2003)이라는 점에서 제주도민의 점복에 대한 태도를 확인한 결과를 본토에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대표성을 뚜렷이 지닐 뿐 무리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신화인 경우 한반도에 적지 않은 민족설화가 있지만 대체로 정치적 역사 서술

의 일부로 한국의 본토에는 엄밀히 말해 신화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고, 제주의 신화는 구전설화나 문헌신화를 포함시키면 한국 전체의 32%를, 신화다운 신화인 무속신화만을 따지면 62%에 이른다(송성대, 2001)는 연구도 있다.

제주는 외부 지역과의 상호작용이 한반도 내 여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기에 지역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 외적 변수나 요인이 상대적으로 단순할 수 있다. 이는 곧 연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독립변수와 요인도 소수이거나 단순할 수 있는 개연성도 지닌다는 뜻이다. 그 밖에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독특한 독자적인 단위 지역을 이루며 현재도 여전히 고유성을 유지하고 있고, 면적과 인구의 크기 면에서 비교적 적절한 규모의 연구 지역이다(송성대, 2010).

마.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역사 곳곳에서 점복은 언급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자주 등장했으나 근대 이후로 점복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다른 연구 성과들에 비해서는 매우 빈약한 편이다(정승안, 1998). 주로 민속학, 종교학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외 사회학, 광고학 그리고 심리학과 상담학에서는 연구가 간간히 이루어져 왔다.

점복에 관한 연구 중 그 역사가 오래되며 점복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연구로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조선의 점복과 예언』(1991)이 있어 많은 연구에서 인용되고 참고 되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적 시각을 담았다는 이유로 새로운 분류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김만태, 2008).

사회학 분야의 연구로 정승안(1998)은 한국사회에서 점복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전근대사회에서는 노동과의 일체화된 과정에서 진행되던 점복이 근대에 와서는 개인적, 기복적인 성향이 강조되며 그 양상과 성격도 달라지고 재미나 오락적인 기능과 심리적 해방과 카타르시스를 위한 원리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강정한(1998)은 사주점복을 복잡한 사회의 카오스적인

면과 닮아 있다는 가정으로 현대 사회에서 드러나는 사주점복의 양상을 연구하였다.

광고학 분야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점복추구’라는 용어를 ‘운명소비행동’이라고 표현하며 운명관, 통제소재 등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철민(2002)은 한국인의 운명소비행동에 내재한 운명관의 내용과 구조를 동양 고전과 관련 문헌들을 통해 고찰하였다. 한국인의 ‘정명관’, ‘역명관’, ‘조명관’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정명관은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또는 미리 정해져 있어서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관점, 역명관은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지만 인위적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관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조명관은 ‘운명은 정해지지 않고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관점이다. 요인분석 결과, ‘유전에 의해 결정 된다’는 ‘유전결정관’이 또 하나의 요인으로 판별되었다.

또한 각 운명관과 운명소비행동, 그리고 통제소재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운명소비행동(소비경험과 소비의도)에 대해 역명관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운명소비행동은 단순히 정해진 운명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 긍정적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는 것이다. 또한 김철민, 이성수(2004)는 사람들이 왜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규명하려 하였는데, 역명관과 유전결정관이 운명소비의도의 주요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다.

심리학, 상담학 분야의 연구로 한국 무속을 심리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오수성(1998)의 연구가 있다. 무속을 서양의 종교와 달리 언제나 민간 수준에서 숨은 종교로 작용해 오며 한국인의 심성에 강하게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심성으로 보았다. 그것을 규명하는 것이 한국 문화와 한국인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 여겼다.

김영재(2004)는 점복 추구자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시행하여 점복 문화 배경의 여성 내담자들을 위한 상담전략을 모색하였다. 먼저, 점복행위가 한계와 자유를 동시에 지닌 인간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실존주의적 접근과 공통적인 면을 갖는다는 것을 시사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초점을 둔다는 점은 단기해결중심의 접근과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연구 결과, 점복을 찾는 이유가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의 필요성으로 인한 것이므로 심

리검사, 다양한 척도와 심리학 기초지식에 대한 교육 역시 내담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상담전략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점복 추구가 점복자를 찾아가 자신의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인 '통과의례의 문턱 넘어가기'의 현상을 자유형, 참고형, 갈등형, 순종형의 네 가지로 파악하였는데, 이들 유형은 처음부터 다르게 나타나기보다는 순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하였다(김영재, 2004).

나주연(2009)은 점복의 한 분야인 사주학을 전통적으로 인간을 치료하는 학문의 하나로 보고 심리치료의 한 분야인 문학치료학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한편, 제주지역 내에서의 점복을 특별히 다룬 연구를 눈여겨 볼 수 있다. 먼저 현대 제주지역 사회에서 벌어지는 점복신앙의 재편성 현상에 대해 다룬 조성윤, 현혜경(2001)의 연구가 있다. 이어서 제주지역 천주교민들만을 대상으로 점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점검한 연구가 있다(문창우, 2008). 이는 뒤의 제주도민과 점복에 관해 별도로 다룬 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다룰 것이다.

그리고 점복 자체만을 다룬 가장 최근의 연구로 점복에 대한 태도 척도(박은경, 2008)가 개발되고 그에 따른 심리적 특성이 고찰되기에 이르렀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남성 집단에 비해 여성 집단일수록 점복 추구 경험이 많고, 점복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갖고 있으며, 점복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타 종교에 비해 기독교 집단이 점복 추구 경험이 적고, 점복에 대해 가장 비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점복에 대한 기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종교 변인을 통제 후 점복 관련 변인과 외부통제, 특성불안,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등 심리적 특성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점복에 대한 호의적 태도집단이 비호의적 태도집단에 비해 외부통제에 가까우며, 특성불안이 높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종교를 통제 후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 태도집단 간 외부통제와 특성불안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변인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3. 상담에 대한 태도

가. 상담의 개념

‘상담’은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촉진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내담자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자기 이해와 자기 지도력을 터득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서 그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장차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한 조망과 해결능력을 갖게 되어 자기효능감과 자족감을 느끼도록 인도하는 일련의 학습과정이다(홍경자, 2011).

또한 상담은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와 심리적 어려움으로 타고난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는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과정”이다(천성문 외, 2015).

김계현(1995)은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 세 분야가 중첩이 심하여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구분은 가능한 유사활동이라 하면서, 임의로 혹은 억지로 구분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전문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 찾을 수 있는 방안을 통칭하는 큰 틀로 ‘상담’을 칭함을 밝힌다.

나. 상담에 대한 태도

‘태도’란 한 마디로 어떤 행동에 대한 평가(Ajzen, 1989)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태도란, 어떤 대상에 대해 일관되게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경향을 말한다(Ajzen, 1975).

태도란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 된다(이강미, 2008). 상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실제적으로 상담실을 찾는 빈도가 높다는 것이다(이강미, 2008).

‘상담에 대한 태도’란 상담에 대한 평가이자, 상담에 대하여 개개인이 반응하는 경향으로, 상담 요청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기도 하다. 내담자가 상담을 받기 전에 어떤 태도와 기대를 갖고 있는지 아는 것은 내담자

의 조기종결 가능성을 줄이고 적절한 상담 목표를 수립하여 좀 더 체계적인 상담활동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김은희, 주은선, 2001)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는 상담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된다(김주미, 2002).

이 ‘상담에 대한 태도’는 여러 연구(김주미, 2002)에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라는 용어로도 중복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복과 대비되는 도움 추구 방편으로서의 상담을 큰 범주로 보기 위하여 ‘상담에 대한 태도’로 칭하며, 기존에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라는 명칭으로 진행된 연구도 논문의 가독성과 일관성을 위하여 ‘상담에 대한 태도’로 수정 및 통일하였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상담에 대한 태도는 크게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으로 나뉘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접근요인으로는 귀인양식, 자존감 등이 있다. 즉, 문제 해결의 책임을 내부에 둘수록(김정연, 2006; 배윤주, 2010), 자존감이 높을수록(이강미, 2008) 상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서 회피요인으로는 자기은폐, 낙인 등이 있다. 즉, 사람들의 부정적인 정보를 감추고자 하는 정도가 높을수록(김주미, 2002), 도움을 청하는 것은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장윤진, 2012) 상담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양의 연구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자기낙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 즉 타인의 시선 또한 상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윤진, 2012). 그리고 신연희(2004)의 연구에서는 상담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접근요인보다 회피요인이 설명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 상담과 자기성찰

조혜정(1992)은 인간이 지금까지 지구상에 생존해 올 수 있었던 근거 중 하나를 자기성찰로 들고 있다. 더불어, 고대 지혜로운 철학자부터 현대의 석학들까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일갈하고 있다(정엄, 2011; Hecht, 2012). 그만큼 자신을 아는 것은 행복, 즉 개인의 안녕감과 깊은 연관이 있다(황주연, 2011).

반면, 문용린(2010)은 자신에 대한 무지는 병이라고까지 하였다. 이렇게 자신을 모르는 것은 불행의 시작과도 같으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는 그만큼 힘들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이가 자신을 보는 거울이 되어주는 과정이 바로 상담이다.

상담이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즉 ‘자기주도적으로’ 내담자가 현재의 어려움을 잘 소화해 내고 넘어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도해 보는 과정이다(노안영, 송현중, 2006).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할 때에도 자존심 때문에 혼자 주저앉아 있는 사람보다는, 적극적으로 나를 조력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함께 의논하면서 나아갈 길을 찾는 사람이 훨씬 더 자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것이다(노안영, 송현중, 2006).

상담은 피하고 싶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맞닥뜨리는 과정, 일주일에 한 번씩 50분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상담자와 만나는 과정을 포함한다(이현림, 강은희, 2004). 이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도 상담에 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만큼 자신에 대해 알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학에서 처음으로 ‘성찰’의 개념을 도입한 Dewey(1933)는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을 계속되는 문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크고 작은 경험 상황에서 눈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문제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앞서 경험한 내용이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 알아내려고 애쓰는 과정, 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과정 자체가 바로 성찰 과정이 되는 것이다(김나현, 2013).

내담자가 상담을 방문하기 이전에는 이처럼 당면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자기성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 자기 성찰을 위한 마음의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 보고자하는 관심, 욕구, 역동이 그것들이다(이재용, 2008).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성찰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과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의 역동이 성실히 따라가는 것이 어려워지며,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것이다(이재용, 2008).

우리나라의 주체적 사상으로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와 관련하여 상담과 같은 맥락을 띠는 다산의 수양론에서도 자기성찰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여기서 자기성찰은 다른 수양의 주요 개념인 ‘실천의지’나 ‘관계적 실현’의 밑바

탕이 되는 개념이다. 자기성찰을 잘 해낸 후에 마음의 실천 의지를 키울 수 있으며, 관계적 상황 속에서 실현해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성찰을 위한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이재용, 2008).

상담과정은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하고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면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Carkhuff, 1969; Carkhuff & Anthony, 1979).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이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나’는 삶의 주체이자 동시에 독립된 사고 주체가 되어야 한다(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 2012). 진정으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자율적인 행동 주체로서 나의 존재 가치와 만족도를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하는 한, 우리는 인간 존재의 근본 조건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져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 조건’은 내가 처해 있는 근본적 관계에 대한 고찰을 뜻한다. 나와 가족, 친구, 이웃 등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 나와 사회 공동체와의 사회적 관계, 나와 자연환경과의 생태적 관계, 그리고 나와 나 자신과의 내면적(자기반성적) 관계 등이 나의 실존적 존재 양상을 결정하는 근본 조건이다(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 2012).

라. 제주도민과 상담

제주에서 본격적인 전문적 상담의 태동은 1988년, 제주지역에 학생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제주상담심리연구회”가 발족되던 때라고 볼 수 있다(송남두, 2014). 영성이 유달리 발달한 지역이라는 인식에 부응하듯, 제주 내에서의 상담 교육과 보급에 대한 열풍은 두드러졌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제주도 내에서의 상담에 대한 태도와 추구 실태가 어떤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된 바는 적은 실정이다. 특히, 국내에서의 상담에 대한 태도 관련 연구에서 제주지역의 자료가 배제된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 예로 김주미, 유성경(2002)의 연구, 김정연(2006)의 연구, 남숙경, 이상민(2012)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제주도의 마을마다 본향당(本鄕堂)이라는 신당(神當)이 있어 여인들이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을 신고하고 고민을 털어놓은 것이 제주도에서 아주 옛적부터 상담

의 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유홍준, 2012). 그러한 풍습은 문제해결이나 심리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점복을 찾는 경향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다. 그렇기에 상담이라는 것이 제주도민에게는 낯설고 불필요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특히, 제주도민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현길언, 2001).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실용적인 것을 중시(현길언, 2001)하며 생활력이 강하다(송성대, 2001).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기성찰의 활동에 대해 높은 가치를 두기보다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거나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생각으로 미루거나 덮어둘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는 또한 좁은 지역 특성 상 서로 아는 사람까지 거치는 경로가 짧다. 명분주의 성향이 짙고 체면을 중시하며(현길언, 2001) 독립심이 강하다(송성대, 2001). 심리적 문제로 인해 도움을 청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기는(정진철, 양난미, 2010) 선행연구 결과와 연결 지어 보면, 자신이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상담추구를 꺼리는 경향이 높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제주지역은 이혼율이 전국 1위에 달하는 등(안서연, 2015) 심리사회적 문제의 심각성과 그 해결의 필요성은 다른 지역 못지않게 높다. 그러므로 제주도 내의 상담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여 제주도민들에게 상담이라는 성숙한 문제해결 방안을 전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될 것이다.

마. 선행연구

사람들은 어려움이나 고통에 봉착하게 되어 자신의 감정과 상황이 문제로 판단되어 도움을 받으면 괴로움이 완화될 것이라고 믿을 때 상담을 받고자 한다(신연희, 안현의, 2005). 또한 최근에는 상담의 영역이 확대되어, 보다 행복해지고 싶고 자신의 잠재력을 더 키우고 발휘하기 원할 때에도 사람들은 상담을 찾을 수 있다(노안영, 송현중, 2006;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 2012). 그러나 어려움이나 고통을 느끼는 모든 사람, 더 잘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상담을 찾는 것은 아니다(Lopez, Melendez, Sauer, Berger & Wyssmann, 1998).

그 이유를 알고자 인구통계학적, 개인내적(심리적), 문화적 변인들을 아우르는 다양한 요인에 따른 상담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는 연구가 있어 왔다. 초기 연구들은 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었는데(정진철, 양난미, 2010; Cramer, 1999), 이런 연구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Fisher & Turner, 1970),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이(Tessler & Schwartz, 1970)와 교육수준이 높은 이가 그렇지 않은 이에 비해(Leaf, Bruce & Tischler, 1986), 서양인이 동양인에 비해 상담을 찾는 것에 대해 더 긍정적이라고 밝혀졌다.

그러나 그 이후 연구들은 인구학적 배경요인은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을 매개하여 전문적 도움추구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밝히고 있다(김주미, 유성경, 2002).

개인내적(심리적) 변인으로 심리적 불편감, 자기은폐 및 사회지지망(김주미, 유성경, 2002), 귀인양식(배윤주, 2010),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 및 수치심(장윤진, 2012), 자존감(이강미, 2008) 등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자존감은 상담에 대한 태도와 뚜렷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강미, 2008). 이들 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불편감, 자기은폐, 사회지지망이 낮을수록 상담에 대한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주미, 2002).

타인에 의해 개인이 결함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말하는 사회적 낙인은 개인이 스스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자기낙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진철, 양난미, 2010). 여기에서 사회적 낙인이란 타인에 의해 개인이 결함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말하고 자기낙인이란 개인이 스스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집단자존감은 개인자존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진철, 양난미, 2010). 집단자존감이란 함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 중요성 등에 대해 내리는 평가를 말하고 개인자존감이란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상담에 대한 태도에 내담자가 속한 문화가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문화인류학적 시각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개인이 자신의 문제를 개념화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문화간 차이를 반영하며, 상담에 관한 태도에도 이러한 문화 간 차이는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다(유성경, 유정이, 2000).

유성경(1998)은 한국 대학생들과 미국 대학생들 간에 우울 정서의 표현양식과

상담에 대한 태도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우울 정서의 표현과 상담에 대한 태도 모두에 있어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학생들이 서구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집단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연구를 실시한 바로는 한국 대학생들이 중국 대학생들에 비해 상담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해영, 2005).

또 다른 문화적 변인으로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이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직적 집단주의 경향이 높을수록 상담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고(김주미, 유성경, 2002), 반대로 수평적 집단주의가 높을수록 상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주미, 2002).

기존의 정통적인 상담접근에서는 내담자가 자신에 대한 이해를 확립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자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통찰지향적인 장기상담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단기상담을 더 선호한다는 연구가 있다(장성숙, 2005에서 재인용).

한편,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가 상담에 오기까지 고민해결이나 행복증진의 다양한 방안 중에 각각을 비교하고 최종적으로 상담을 택하여 온다는 점에서 상담을 일종의 상품으로 가정하였다. 내담자는 약을 복용하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책을 읽고 일기를 쓰거나, 친구나 가족 등 사회적 지지자원을 만나 고민을 토로하고 어려움을 떨쳐버린 뒤 행복 추구를 시도할 수 있었음에도 상담을 선택하여 상담소에 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담에 올 수 있는 내담자들이 상담 대신에 다른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몇 가지의 행위 경로에 직면하였을 때 가장 적합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을 일반적으로 수행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론’이다. 즉, 사람들은 “주어진 대안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한 후에 그중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한다(강준만, 2007)”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담을 상품으로 가정한 연구로 문수정(2011)의 연구가 있다. 상담은 무형적 서비스이자 경험품질이기보다는 신뢰품질, 그리고 개인적 노출을 전제로 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특징이 있어 이를 추천하는 사람이 자신과 유사한 특성을 띠면서도 신뢰를 주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상담 그 자체에 대한 태도가 아무리 긍정적일지언정 그것보다 더 선택하고 싶거나 선택이 쉬운 대안이 있다면 상담으로의 접근은 차단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상담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도 회피요인이 접근요인 이상의 설명력을 지닌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신연희, 안현의, 2005). 하물며 상담에 있어 회피요인이 될 수 있는 자기 노출, 자기 은폐, 노출에 따른 위험과 유용성 기대라는 변인이 자기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점복자가 알아서 먼저 이야기해 주고, 문제 해결 방안을 즉각적이고 지시적으로 제시해 주는 점복의 접근요인이 된다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담에 대한 태도와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의 오랜 인생 상담 역할을 해온 점복에 대한 태도를 함께 고찰함으로써 상담이 대중들에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가까이 다가갈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이 서구문화에서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동양문화에서 동양인들의 상담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연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김주미, 2002; 이해영, 2005). 그 중에서도 독특한 문화를 지닌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와중, 한국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점복에 대한 태도와 함께 이를 비교 고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6. 가설

이상에서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이론적 고찰을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를 통해 탐색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점복에 대한 태도와 상담에 대한 태도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을 것이다.

가설 2. 자기성찰은 상담에 대한 태도와 점복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자기성찰 정도가 낮을수록 점복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것이다.

가설 2-2. 자기성찰 정도가 높을수록 상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도민의 자기성찰 정도에 따라 점복에 대한 태도와 상담에 대한 태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주도에 거주 중인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지 450부를 배포하여 421부를 회수하였다. 그 중 결측치가 있는 설문지 58부를 제외하여 총 36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주도민은 2015년 2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성인을 지칭한다. 여기에서 성인이라 함은 2013년부터 시행된 민법 제 4조에 따라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지칭하나 태어난 년도부터 1살이 되어 연나이로 계산하는 우리나라 관행에 따라 응답자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구분을 '20대'부터로 표기하였다. 출신지가 타 지역인 경우에도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으면 제주도민으로 간주하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15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였다. 설문지의 취지를 안내하고 그에 동의한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응답 후 회수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보다 제주도민들에게 친숙한 점복에 대한 태도를 시작으로 하여 상담에 대한 태도, 자기성찰 정도를 이어서 구성하였고 응답에 대한 예민성을 줄이기 위해(박도순, 2004) 인구통계학적 질문을 가장 뒤에 배치하였다.

3. 연구도구

연구에 사용된 도구들의 측정 내용 및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가. 점복에 대한 척도

점복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박은경(2008)의 “점복에 대한 태도”척도를 사용하였다. 사용 전에 사용자에게 서신을 통해 동의를 구하였다.

점복에 대한 척도는 ‘점복 추구 의도’(8문항), ‘부정적 평가’(5문항), 점복에 대한 믿음과 점복자의 능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인정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는 ‘점복 또는 점복자에 대한 믿음’(9문항), 점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관련된 내용인 ‘점복 추구자에 대한 평가’(4문항), 그리고 ‘긍정적 평가’(5문항)의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서 연구자가 작성한 점복 추구 경험과 점복 추구 의향 및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점복에 대한 태도 척도는 개발 당시의 연구에서 신뢰도가 .94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22로 나타났다.

표 III-1. 점복에 대한 태도 하위 영역 별 문항번호와 신뢰도 (N=363)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점복 추구 의도	8	14, 15, 16, 17, 18, 19, 20, 21	.923
부정적 평가	5	23*, 26*, 28*, 30*, 31*	.835
점복 또는 점복자에 대한 믿음	9	1, 2*, 3, 4*, 5, 7, 8*, 9, 11	.389
점복 추구자에 대한 평가	4	6*, 10*, 12*, 13*	.850
긍정적 평가	5	22, 24, 25, 27, 29	.834
전체	31		.822

주. *는 분석 시 역산한 문항임.

나. 상담에 대한 태도 척도

상담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구는 Fisher와 Turner(1970)가 개발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척도(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이다(남숙경, 2010).

Fisher와 Turner(1970)는 사람들이 심리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 도움을 구하는데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29문항의 척도를 개발해냈다. 해당 연구에서 그들은 도움 필요성 인식, 낙인에 대한 내인성, 자기 문제에 대한 개방성, 전문가에 대한 신뢰의 네 가지 요인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석해냈다.

그러나 이 4요인으로 이루어진 척도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을 때 전체 척도에서 일관되게 낮은 내적 합치도가 산출되었고, 4요인 구조의 타당도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남숙경, 2010).

한편, Fisher와 Farina(1995)는 처음 29문항 척도의 수정된 버전인 10문항 단축형 척도(ATSPPH-SF)를 개발하였다. 수정된 단축형 척도에는 낙인에 대한 내인성과 자기 문제에 대한 개방성 요인이 제외되었다. 대신 단축형 척도는 상담에 대한 신뢰와 상담의 필요성 인식의 2가지 차원에서 태도를 측정한다.

이 단축형 척도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구인타당도 점검을 한 결과 ‘긍정태도와 필요성’, ‘부정태도와 불필요성’의 2요인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남숙경, 2010). 이 구인타당도 점검 연구에는 유성경(1997)이 번역한 것을 신연희(2004)가 수정하여 사용한 29문항에서 추려진 10문항이 사용되었고,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것을 사용했음을 밝힌다. ‘상담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필요성’의 5문항, ‘상담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불필요성’의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정적 태도와 불필요성’ 문항인 2, 4, 8, 9, 10번은 역산한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상담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필요성의 신뢰도’가 .824, ‘부정적 태도와 불필요성’의 신뢰도가 .643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804로 나타났다.

표 III-2. 상담에 대한 태도 하위 영역 별 문항번호와 신뢰도 (N=363)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긍정적 태도와 필요성	5	1, 3, 5, 6, 7,	.824
부정적 태도와 불필요성	5	2*, 4*, 8*, 9*, 10*	.643
전체	10		.804

주. *는 분석 시 역산한 문항임.

다. 자기성찰 척도

자기성찰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황주연(2011)이 개발한 자기성찰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용 전에 사용자에게 서신을 통해 동의를 구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탐색, 자기이해, 타인탐색, 타인이해의 4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5문항씩 총 20문항이다. 기존의 관련 척도(사적 자의식, 내성, 반성적 반응양식 척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수렴되면서도 한국인 특유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을 포함하였다.

이 척도는 크게 ‘자기/타인’, 그리고 동시에 ‘탐색/이해’ 영역으로 구분된다. ‘자기탐색’ 요인은 ‘자신의 불편한 감정에 대한 분석, 탐색과 관련된 내용’을 의미한다. ‘자기이해’ 요인은 ‘자신의 마음이나 행동, 경험에 대한 이해와 그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취하는 것’과 관련된 요인이다. ‘타인탐색’ 요인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그의 생각과 기대 등을 살펴보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타인이해’ 요인은 ‘상대방과 둘 간의 갈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상대에 대한 배려와 적절한 해결방법의 모색과 관련된 내용’이다. 각 요인의 내적 일치도는 자기탐색이 .865, 자기이해가 .823, 타인이해가 .705, 타인탐색이 .799이다.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907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자기탐색이 .869, 자기이해가 .835, 타인탐색이 .876, 타인이해가 .839로 나타났다. 전체 신뢰도는 .941로 확인되었다.

표 III-3. 자기성찰 하위 영역 별 문항번호와 신뢰도 (N=363)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자기영역	자기탐색	5	1, 2, 3, 4, 5	.869
	자기이해	5	6, 7, 8, 9, 10	.835
관계영역	타인탐색	5	11, 12, 13, 14, 15	.876
	타인이해	5	16, 17, 18, 19, 20	.839
전체	20			.941

4.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22.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각 연구변인의 하위요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셋째, 점복에 대한 태도와 상담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점복에 대한 태도 및 상담에 대한 태도에 대한 자기성찰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최종 분석한 응답자들의 분포는 다음 페이지의 표 IV-1과 같다. 먼저, 응답자는 남자 156명(43%), 여자 207명(57%)으로 구성되었다. 연령에 따르면 30대가 106(2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40대(99명, 27.3%), 50대(64명, 17.6%), 20대(57명, 15.7%), 60대(27명, 7.4%), 그리고 70대 이상(7명, 2.8%) 순으로 많았다.

종교로는 무교(종교 없음)에 응답한 이가 155명(42.7%)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 신자가 95명(26.2%)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가톨릭과 기독교 신자가 둘 다 47명(12.99%)이었다. 기타에 응답한 이는 19명(5.2%)이었으나 모두 별도로 자신의 종교를 기재하지 않았다.

제주시민이 302명으로 대부분(83.2%)을 차지했으며 서귀포시민은 61명으로 16.8%를 차지했다. 제주 출신인 제주도민이 305명으로 84.0%, 타 지역 출신인 제주도민이 58명으로 16.0%였다.

점복 추구 경험과 의향에 대한 응답을 보면, 점복 추구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05명(56.5%), 없는 응답자는 158명(43.5%)으로 절반 이상이 점복 추구 경험이 있었다. 점복 추구 의향은 172명이 '있다'(47.4%), 나머지 191명이 '없다'(52.6%)에 답함으로써 실제 경험자보다 추구 의향자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추구 경험과 의향에 대한 응답을 보면, 상담 추구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93명으로 25.6%, 없는 응답자는 270명으로 74.4%를 나타냄으로써, 점복 추구에 비해 상담 추구 경험이 확연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상담 추구 의향에 있어서는 '있다'에 응답한 이가 217명(59.8%)으로 실제 상담 경험자나 점복 추구 의향자를 웃도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N=363)

구분		빈도(n)	퍼센트(%)
인구 통계학적 특성	성별	남	156 43.0
		여	207 57.0
	연령	20대	57 15.7
		30대	106 29.2
		40대	99 27.3
		50대	64 17.6
		60대	27 7.4
		70대 이상	10 2.8
	종교	가톨릭	47 12.9
		기독교	47 12.9
		불교	95 26.2
		무교	155 42.7
		기타	19 5.2
	시	제주시	302 83.2
		서귀포시	61 16.8
제주 출신 여부	그렇다	305 84.0	
	아니다	58 16.0	
점복 추구	점복 경험 여부	있다	205 56.5
		없다	158 43.5
	점복 추구 의향	있다	172 47.4
		없다	191 52.6
상담 추구	상담 경험 여부	있다	93 25.6
		없다	270 74.4
	상담 추구 의향	있다	217 59.8
		없다	146 40.2

점복과 상담의 과거 추구 경험과 미래 추구 의향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각각 다음 장의 표 IV-2, IV-3과 같다. 먼저 과거 경험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점복 경험만 있고 상담 경험은 없는 경우가 144명으로 가장 많고, 점복 경험과 상담 경험 모두 없는 경우가 12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점복 경험과 상담 경험 모두 있는 경우가 61명으로 세 번째였고, 마지막으로 점복 경험은 없고 상담 경험만 있는 경우가 32명이었다.

미래 추구 의향에 대해 교차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점복과 상담 모두 추구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가 1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점복과 상담 추구 의향 모두 없다고 답한 이가 103명, 점복 추구 의향은 없지만 상담 추구 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88명이었다. 마지막으로 점복 추구 의향은 있지만 상담 추구 의향은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43명으로 가장 적었다.

표 IV-2. 점복과 상담의 과거 추구 경험 (N=363)

		상담경험		전체
		있다	없다	
점복경험	있다	61	144	205
	없다	32	126	158
전체		93	270	363

표 IV-3. 점복과 상담의 미래 추구 의향 (N=363)

		상담의향		전체
		있다	없다	
점복의향	있다	129	43	172
	없다	88	103	191
전체		217	146	363

표 IV-4. 점복 및 상담 추구 의향이 있는 분야 (다중 응답)

점복 의향 분야				상담 의향 분야			
	N	비율		N	비율		
1	가족	99	27.3%	1	가족	127	35.0%
2	경제	87	24.0%	2	정신건강	110	30.3%
3	택일·작명·풍수	87	24.0%	3	경제	77	21.2%
4	직업	77	21.2%	4	대인관계	76	20.9%
5	이성	46	12.7%	5	자기이해·성격	75	20.7%
6	신체	42	11.6%	6	직업	63	17.4%
7	대인관계	22	6.1%	7	신체	53	14.6%
8	학습	17	4.7%	8	법적 갈등	33	9.1%
9	자기이해·성격	13	3.6%	9	이성 관계	32	8.8%
10	정신건강	10	2.8%	10	학습	13	3.6%
11	기타	6	1.7%	11	기타	5	1.4%
12	법적 갈등	5	1.4%	12	택일·작명·풍수	0	0%
1200.0%				1200.0%			

점복 추구 의향이 있는 분야, 상담 추구 의향이 있는 분야에 대한 다중 응답을 빈도분석한 결과는 위 표 IV-4와 같다. 점복과 상담에서 모두 '가족' 분야에 대한 의향이 가장 높았다. 점복 의향 분야는 가족에 이어 경제, 택일·작명·풍수, 직업, 이성 순으로 높은 응답을 나타냈고, 상담 의향 분야는 가족에 이어 정신건강, 경제, 대인관계, 자기이해 및 성격 분야의 순으로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응답 결과가 나타났다.

2.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점복에 대한 태도, 상담에 대한 태도와 자기성찰의 하위영역에 대한 기술 통계치를 분석하였다.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V-5와 같이 나타났다.

표 IV-5.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평균 및 표준편차 (N=363)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분산	
점복에 대한 태도 (4점척도)	점복추구의도	363	1.00	3.88	1.84	.68	.46
	부정적평가	363	1.00	4.00	2.73	.66	.44
	믿음과 인정	363	1.00	3.50	2.23	.48	.23
	추구자평가	363	1.00	4.00	2.44	.69	.48
	긍정적평가	363	1.00	4.00	2.07	.63	.40
전체	363	1.00	3.45	2.26	.48	.23	
상담에 대한 태도 (4점척도)	긍정필요	363	1.00	4.00	2.86	.58	.34
	부정불필요	363	1.00	4.00	2.53	.49	.24
	전체	363	1.00	4.00	2.70	.46	.21
자기성찰 (5점척도)	자기탐색	363	1.40	5.00	3.67	.69	.48
	자기이해	363	1.00	5.00	3.56	.64	.41
	타인탐색	363	1.00	5.00	3.72	.64	.41
	타인이해	363	1.60	5.00	3.61	.61	.37
	전체	363	1.25	5.00	3.64	.56	.31

점복에 대한 태도의 전체 평균은 2.26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점복추구의도가 1.84, 부정적 평가가 2.73, 믿음과 인정이 2.23, 추구자에 대한 평가가 2.44, 점복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2.07이었다.

상담에 대한 태도의 전체 평균은 2.70으로 확인되어, 점복에 대한 태도의 평균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하위요인 별로는 상담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필요

성의 평균이 2.86, 상담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및 불필요성의 평균이 2.70으로 나타났다.

자기성찰의 전체 평균은 3.64이다. 하위요인별 평균은 자기탐색이 3.67, 자기이해가 3.56, 타인탐색이 3.72, 타인이해가 3.61로 나타났다.

3. 점복에 대한 태도, 상담에 대한 태도와 자기성찰 간의 상관관계

연구문제 1의 ‘점복에 대한 태도와 상담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IV-2와 같다.

우선 점복에 대한 태도와 상담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상관 분석 결과,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점복에 대한 태도, 상담에 대한 태도와 자기성찰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상담에 대한 태도와 자기성찰과의 관계는 $.248(p<.01)$ 의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복에 대한 태도와 자기성찰과의 관계는 $-.132(p<.05)$ 의 낮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6.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구분	1	1-1	1-2	1-3	1-4	1-5	2	2-1	2-2	3	3-1	3-2	3-3	3-4
1. 점복전체	1													
1-1. 점복추구의도	.772**	1												
1-2. 부정적평가	.733**	.335**	1											
1-3. 믿음과인정	.809**	.648**	.475**	1										
1-4. 추구자평가	.716**	.309**	.525**	.452**	1									
1-5. 긍정적평가	.836**	.703**	.467**	.648**	.424**	1								
2. 상담전체	.062	.057	.024	-.020	.070	.090	1							
2-1. 긍정필요	.050	.121*	-.026	.025	-.007	.076	.879**	1						
2-2. 부정불필요	.057	-.035	.076	-.066	.138**	.077	.827**	.459**	1					
3. 자기성찰전체	-.132*	-.096	-.134*	-.049	-.132*	-.083	.248**	.284**	.128*	1				
3-1. 자기탐색	-.169**	-.140**	-.133*	-.104*	-.164**	-.101	.196**	.221**	.105*	.871**	1			
3-2. 자기이해	-.141**	-.089	-.176**	-.026	-.124*	-.106*	.243**	.290**	.110*	.858**	.684**	1		
3-3. 타인탐색	-.064	-.031	-.072	-.027	-.093	-.016	.229**	.255**	.127*	.891**	.699**	.673**	1	
3-4. 타인이해	-.078	-.068	-.081	-.006	-.069	-.060	.192**	.218**	.101	.839**	.603**	.611**	.712**	1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점복은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 가톨릭의 신념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교의 영향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종교의 변인을 통제한 편상관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IV-7. 점복에 대한 태도와 자기성찰 간의 상관관계 (편상관)

통제변수			점복에 대한 태도	자기성찰
종교	점복에 대한 태도	상관	1.000	-.112
		유의수준(양측)	.	.033
		df	0	360
	자기성찰	상관	-.112	1.000
		유의수준(양측)	.033	.
		df	360	0

표 IV-8. 상담에 대한 태도와 자기성찰 간의 상관관계 (편상관)

통제변수			상담에 대한 태도	자기성찰
종교	상담에 대한 태도	상관	1.000	.237
		유의수준(양측)	.	.000
		df	0	360
	자기성찰	상관	.237	1.000
		유의수준(양측)	.000	.
		df	360	0

종교 변인을 통제하고도 점복에 대한 태도와 자기성찰 간에 낮은 부적 상관($p < .05$), 상담에 대한 태도와 자기성찰 간에 낮은 정적 상관($p < .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의 정도는 미세하게 줄어들었으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다른 변인의 영향 없이도 점복에 대한 태도와 자기성찰 간에는 부적 상관이 있으며, 상담에 대한 태도와 자기성찰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자기성찰이 점복에 대한 태도와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의 ‘자기성찰이 점복에 대한 태도와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각각의 결과는 표 IV-9, 표 IV-10와 같다.

표 IV-9. 자기성찰이 점복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p</i>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684	.167		16.082	.000
자기성찰	-.115	.045	-.132	-2.540	.012

R=.132, R²=.018, adjustR²=.015, F=6.450, p=.012

표 IV-10. 자기성찰이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p</i>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959	.154		12.721	.000
자기성찰	.204	.042	.248	4.873	.000

R=.248, R²=.062, adjustR²=.059, F=23.750, p=.000

표 IV-9에 의하면, 자기성찰과 점복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에 대해 R=.132로 나타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성찰이 점복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통계적 유의수준 $p < .05$ 이하에서 $t = -2.540$, $p = .012$ 로 자기성찰은 점복에 대한 태도에 B=-.115만큼 영향력을 미치며 그 설명력은 1.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에 따르면, 자기성찰과 상담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에 대해 R=.204로 나타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성찰이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통계적 유의수준 $p < .05$ 이하에서 $t = 4.873$, $p = .000$ 으로 자기성찰이 상담에 대한 태도에 B=.204만큼 영향을 미치며 6.2%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제주도민의 점복에 대한 태도와 상담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 점복에 대한 태도와 상담에 대한 태도에 자기성찰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점복에 대한 태도와 상담에 대한 태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점복에 대한 태도 및 상담에 대한 태도에 대한 자기성찰의 영향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 중인 20세 이상 성인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였고 총 363개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와 결론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논의

연구문제에 따른 논의로 들어가기에 앞서, 본 연구의 기술통계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점복 추구 경험이 상담 추구 경험에 비하여 더 높았지만(표 IV-2 참조), 앞으로의 추구 의향은 상담이 점복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 참조). 이 결과는 아직까지는 점복 추구가 상담 추구에 비하여 흔히 이루어져 왔으나, 제주도민의 상담에 대한 욕구와 인식이 점복에 비하여 부정적인 편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심리, 치유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대중매체의 보도와 각종 교육 등 상담을 알릴 수 있었던 기회가 늘고 사회문제의 대두로 인한 그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원인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점복 추구 행위는 미개하다거나 무지하다는 인식 때문에 단순 질문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어(박은경, 2008), 조사를 통해 알려진 수치보다 실

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점복에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점복 추구 의향이 있는 분야와 상담 추구 의향이 있는 분야를 각각 살펴 보았는데, 점복에 있어서는 가족, 경제, 택일·작명·풍수, 직업, 이성 순으로 높았고, 상담에 있어서는 가족, 정신건강, 경제, 대인관계, 자기이해 및 성격 순으로 높았다(표Ⅳ-4. 참조). 제주사람은 친족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강하고 가문에 대해 남다른 관심이 있는 제주도민의 특성(현길언, 2001)이 반영되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결과다. 제주도 내 상담전문가들은 가족상담의 전문성을 키울 필요성이 있을 것임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가 점복에서 2위, 상담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경제 상황이 어려움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을 가능성, 한편으로는 절약정신이 두드러지고 현실적인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 제주도민의 특성(현길언, 2001)이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한편, 직업 문제(점복 77 > 상담 63), 이성 문제(점복 46 > 상담 32), 학습 문제(점복 17 > 상담 13) 모두 상담 추구 의향이 점복 추구 의향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위 세 가지 분야 모두 자신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때 보다 현명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미래 예측, 조언, 궁합보다 상담을 통해서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음을 홍보하고 교육함이 필요할 듯하다.

이어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대한 논의로 들어간다.

연구문제 1. 점복에 대한 태도와 상담에 대한 태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점복이 상담과 같은 역할을 해온 문화임에도 점복에 대한 태도와 상담에 대한 태도는 다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두 변인 간 상관관계 검증을 진행하였다. 점복에 대한 태도와 상담에 대한 태도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나타났다. 이는 점복에 대해 호의적인 집단과 상담에 대해 호의적인 집단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점복에 대해 기대하는 바와 상담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두 태도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에 대해 논의할 점을, 상담을 직접 찾아온 내담자와 아직 상담을 찾을 의향이 없거나 찾지 않는 잠재 내담자에 대한 것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상담을 찾은 내담자에 대한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명목 하에 또는 대등한 관계라는 인식

하에 명료화 또는 반영이라는 기법을 주로 사용하면 내담자는 오히려 실망하여 떠날 수 있기에(장성숙, 2005) 지시적 상담기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스스로의 판단력이나 결정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상담자가 업무자모와 같은 웃어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장성숙, 2005). 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2008)의 성공적인 한국적 상담자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서구에 비해 내담자와 더욱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태도를 통해 내담자의 의존욕구를 처리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담자 스스로가 변화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자기표현을 하며 문제해결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충고 위주의 상담은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것을 차단한다(노안영, 송현중, 2006). 충고를 통해 상담자는 암묵적으로 ‘내담자는 틀렸으니 내가 제시하는 방법을 따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추후 삶의 과정에서의 문제해결도 상담자에게 계속 의존하게 할 수 있다(노안영, 송현중, 2014).

또한 신경진(2010, 2012)은 ‘내담자가 직접 내면을 관찰하여 표현하는 언어화 과정은 자아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견고하게 다지는 데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였다. 상담자가 점복자처럼 말하지 않은 것을 알아맞히고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를 차단한다면 ‘자신의 내면을 관찰한 바를 말로 전달하면서 자아의 표피를 튼튼하게 다져갈(신경진, 2012)’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내담자가 점복에 대해 기대하는 것과 상담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같지 않고 았다면 모든 내담자에게 지시적 상담이 적용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지시적 기법은 특히 초보상담자나 성찰 없는 상담자가 상담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구현하지 못한 채 선불리 사용하였을 때 역효과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상담자들은 때로 ‘말 잘 듣는 내담자’, ‘말을 잘 듣지 않는 내담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등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내담자들은 초보상담자가 진행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은 경험의 요인으로 ‘공감’을 가장 많이 보고하였다(신재호, 2005). 잠재내담자들 또한 상담자로부터 지시정보보다는 수용성과 공감성을 더 기대하였다(이수현, 2000). 고경희(2013)는 심리검사 해석상담에서 지시적 상담과 공감적 이해 상담의 차이를 기술했는데, 지시적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납득하지 못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더라도 상

담자의 조언을 설득시킨 후 끝내게 되지만(김계현, 1992), 공감적 태도로 내담자를 참여하게 하면 자기개방성과 상담에 대한 동기가 올라간다고 하였다. 지시적 상담은 상담자의 자각과 주의를 전제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선별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어서, 점복에 대한 태도와 상담에 대한 태도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아직 상담을 찾지 않는 잠재내담자와 점복만을 추구하는 점복 추구자들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도 제공한다. 상담에 대한 회피요인의 연구 결과들로 자기개방을 꺼리고(장진이, 2001; 김주미, 2002)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하며(오현수, 2012), 상담을 모르거나 어렵게 생각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비칠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도 한다(신연희, 안현의, 2005)는 것 등이 있었다. 반대로, 김영재(2004)의 연구에 따르면 점복 추구자들이 상담에 비해 점복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 특성으로 말하지 않아도 고민을 알아차리고 적은 비용으로 편하게 달래준다는 것, 앉은 자리에서 처방을 즉시 알려주는 것,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 탓이라고 마음 편히 생각하게 해주기도 하는 것(고진석, 2013; 김영재, 2004) 등이 있었다. 상담에 대한 회피요인이 점복에 대한 접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연구자의 관찰 사례에서도 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며 상담에 대해 문의를 해오다가도 점복을 먼저 경험한 뒤 상담소 방문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있었다. 점복자가 ‘잘 될 것이다’고 말해주었다는 것에 위안을 삼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하지 않은 것이다. 당사자는 당시에, 상담을 추구하려다 점복을 추구한 이유를 물은 연구자에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외부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상담은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라고 하였다. 비슷한 경우로, 상담을 통해 치유와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심리적 어려움과 생활 적응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도 ‘점복자가 삼재라더라’고 하며 다른 전문적 조력과정은 찾아 변화를 피하려는 시도 없이 현재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었다.

점복은 학생들도 손쉽게 방문하는 타로카페 등으로 접근성과 보편성을 확보한 지 오래이다(강정환, 1998; 김영재, 2004; 김미라, 백용매, 2010). Fisher, Nadler와 Whitcher-Alagna(1982)는 잠재 내담자들이 상담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온전히

숙고하여 결정내릴 수 있도록 상담의 진정한 비용과 이점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Vogel, Wester & Larson, 2007에서 재인용) 상담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고 효과와 필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경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상담으로의 진입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잠재 내담자들로의 접근을 위해 결국은 점복에 대한 태도와 상담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형성하는 근본적 특성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기성찰’ 변인이 바로 각각의 태도에 대해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의 연구문제 2에 대한 논의에서 계속된다.

연구문제 2. 점복에 대한 태도 및 상담에 대한 태도에 대한 자기성찰의 영향은 어떠한가?

자기성찰 정도가 낮을수록 점복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며 자기성찰 정도가 높을수록 상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성찰 정도가 낮은 이들은 상담을 추구할 가능성이 낮고, 자기성찰이 높을수록 상담 추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짐작하게 한다. 우리나라, 특히 제주도에서는 예로부터 신당 등을 통해 자신의 일을 알리고 고민을 털어놓는 문화가 전통적으로 있어왔다(유홍준, 2012).

또한 점복은 제주도민의 관혼상제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점집을 방문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함께 증가한다. 그렇기에 고민이 생길 때 별다른 반성적 사고 없이 습관적으로 점복을 찾게 되는 것을 자기성찰이 낮을수록 점복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 되는 이유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점복은 외부귀인적이고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특성(장성숙, 2005)을 지니므로 자기성찰이 낮을수록 점복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기가 쉬울 것이다. 점복에 대한 태도와 정적 상관을 이루는 변인들인 외부통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통제소재(박은경, 2008) 또한 자기성찰과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요인들이다.

반대로, 점복과는 달리 사람들이 상담을 찾을 때에는 자기성찰이 높은 상태에서 문을 두드리게 됨을 추측할 수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자기성찰에 대한 노력을 지지하고, 자신이 보는 스스로에 대해 확인받거나 보다 깊은 탐색을 하고자

하는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사례개념화와 탐색 및 통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연구문제 1에서는 점복문화 배경의 내담자일지라도 상담에 대한 태도가 점복에 대한 태도와 다르다면 일괄적으로 지시적 상담을 적용할 필요는 없겠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장성숙(2005) 또한 내담자의 의존 욕구에 부응하는 한국적 상담자의 역할을 제시한 것에 이어 점차적으로 내담자의 내부귀인을 도와가야 할 것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본 연구문제 2에서 확인된 바에 따라, 초기상담이나 상담 중기에 자기성찰 정도를 점검한다면 내담자가 자신의 책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가능 여부나 점차적인 변화가 가능한 시점을 파악하는 데에 참조변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성찰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상담 역시 개개인에게 자기성찰을 증진하게 하여 선순환적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자기성찰과 상담에 대한 태도를 증진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인의 21%가 ‘철학’하면 ‘점복’을 떠올리는 이 상황(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1)에서 진정한 성찰의 좋은 도구인 상담이 충분한 수요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상담은 오히려 수요에 비해 공급 과잉 상태가 되어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장성숙, 2015). 기존 연구에서는 상담과 같은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개인이 내면화하는 과정에 대한 개입이 강조되었고 그에 대한 교육과 홍보와 개인의 인지과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되었다(정진철, 양난미, 2010). 점복에 대한 태도와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자기성찰의 영향력을 점검한 본 연구는 그러한 인지과정을 밝히는 데에 또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일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 보다 더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Calhoun & Tedeschi, 2013/2015). 점복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을 얻는 일은 일시적으로는 편안하게 해주어도 지금의 고통을 외면하게(이정은, 2010) 하는 임시적 방편일 수 있다. 반대로 상담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뿐 아니라 다른 문제 또한 적극적으로 다루어나가는 힘을 북돋아주는 과정이다(정원식, 박성수, 김창대, 1999). 상담의 자기성찰적인 면을 부각시켜 잠재 내담자들이 힘겨운 시간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장은 제주도의 전통문화와 고유 생활방식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점복은 제주도민의 강한 무속신앙이 반영된 대표적 분야로, 제주사람의 생활을 지배하여 온 것이 무속임에는 틀림이 없다(현길언, 2001). 그러나 문화를 이해하고 보존하는 것과 비합리적인 생활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다르다. 현길언(2001)은 ‘문화를 계승하는 목적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며, 우리 과거의 삶이 어우러져 있는 문화현상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우리를 성찰할 수는 있지만 불필요한 것을 이어갈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했다. 상담 전문가들은 점복 문화 배경의 내담자들을 위한 접근으로 물리적 환경이나 외적 요소를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인간의 잠재력을 믿고 성장을 돕는다는 상담의 고유한 속성 자체를 변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2.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점복에 대한 태도와 상담에 대한 태도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므로 선행 연구에서 고찰되었던 점복문화 배경의 내담자를 위한 상담전략을 내담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상담의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원리를 유지하며 내담자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점복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이고 점복자와 같은 상담자를 기대하는 내담자일지라도, 궁극적으로 필요한 책임인식과 자기표현 등을 늘려가야 할 것이다.

둘째, 점복에 대한 태도에는 자기성찰이 부적 영향을 미치고, 상담에 대한 태도에는 자기성찰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에 대한 탐색과 이해를 비교적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복에 대해 호의적이고, 자신에 대한 탐색과 이해를 비교적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상담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그러므로 자기성찰이 낮은 이들도 상담을 추구하는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자기성찰을 증진할 방안을 제공하고, 상담에 대해 다양한 홍보와 접근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상담을 찾은 이들에게는 자기성찰을 더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상담자들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지니는 이론적, 실제적 측면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론적 측면에서는 첫째,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실제적 비교 없이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되었던 점복에 대한 태도와 상담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를 최초로 규명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기존의 점복에 대한 태도와 의향, 그리고 상담에 대한 태도와 의향에 관한 연구는 각각만을 놓고 보았던 반면, 상담으로의 진입을 막는 점복에 대한 태도와 그 추구 경험 및 의향은 살펴보지 않았다. 본 연구는 그 두 가지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각각의 조력과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비교할 수 있었다.

이어서 실제적 측면에서는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이다. 최근 상담에 대한 태도 연구들은 문화적 맥락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보다 더 교차 문화적이고 다중 문화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재연, 2014).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본토로부터 떨어져 있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전국 단위의 조사에서 제외되기도 하지만, 바로 그 섬이라는 특성에서 제주만의 지역적 동질성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이재연, 2014).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성찰 증진 프로그램, 상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진행하여 도민의 자기성찰 정도와 상담에 대한 태도를 함께 증진시킬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점복 추구자와 상담 추구자의 차이를 형성하는 변인을 밝힘으로써 각 도움추구자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잠재 내담자에 대한 상담으로의 유입을 늘릴 방안과 함께 실제 내담자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고안하는 데 대한 근거가 될 것이다.

이상에서의 고찰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성인으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 전체 성인으로 일반화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관련 연구를 추가로 시행한 후, 그 결과와의 비교 분석 및 결과의 통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각 지역별 특성에 따른 심도 있는 연구가 시행된다면, 해당 연구들의 축적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의 점복에 대한 태도와 상담에 대한 태도 간의 직접적인 비교와 그에 대한 자기성찰의 영향이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둘째, 본 주제에 대하여 양적 연구만이 이루어졌으므로, 각 태도 수준에 따른 내담자에 대한 질적 연구나 내담자의 무의식적 수준의 태도와 행동이 확인되는 관찰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각 집단을 향한 상담의 접근과 적용 전략을 상세히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상담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자기성찰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에 대한 개발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가 성찰의 부재에서 온다. 각종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많은 현상들은 자신을 돌아볼 새 없이 외부의 기준에 맞춰 자신과 자신의 감정을 잃어가며 그것을 스스로 다스리기 힘든 데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자신을 잃고서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며 배려하는 일은 더더욱 힘들다. 이 사회는 보다 성찰적이 되어 마음의 힘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강상중, 2015).

자기성찰 프로그램의 개발과 참여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보다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습관화하며, 그를 통해 상담을 찾는 일을 보다 친숙하게 여기고, 또 다시 상담을 통해 더욱 성찰적이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가 될 것이다. 결국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을 잘 이해하고 성찰적이 되어 결과적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내담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소망이자 의무로 삼는 상담자들의 장기적이고 거시적이며 궁극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상중 (2015). **마음의 힘**. 경기: 세계절출판사.
- 강정한 (1998). **사주점복의 카오스적 설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준만 (2007). **선사인 논술사전**. 서울: 인물과 사상사.
- 강지희 (1994). **제주도 심방(神房)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진령 (2005). 한국 상담의 비교 문화적 고찰을 통한 상담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 9, 23-42.
- 고경희 (2013). **심리검사해석상담에서 상담자의 공감적 이해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기홍 (2014). **(통합적 자기관리 모형을 통한) 개인상담**. 서울: 학지사.
- 고미숙 (2008). **나의 운명 사용설명서**. 서울: 북드라망.
- 고영복 (2000). **사회학사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고진석 (2013).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서울: 웅진서가.
- 곽윤정, 강민수, 이지혜, 엄채운 (2013). **내 아이의 강점지능**. 경기: 21세기북스.
- 김경훈 (1996). **한국인의 66가지 얼굴**. 서울: 새로운 사람들.
- 김계현 (1992). 단회상담의 원리와 기술 1. **학생연구** 27(1),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나현 (2013). **자기성찰 활동 중심의 영어 그림책 수업이 읽기 능력 및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효과 : 인문계 고등학교 학습부진학생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전 (2003). 제주 지역 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방안 : 제주국제자유도시 시대와 관련하여. **지방사와 지방문화**, 6(2), 315-346.
- 김만태 (2008). 한국 점복의 정의와 유형 고찰. **한국민속학**, 47, 203-233.
- 김미라, 백용매 (2010). 사주경험과 사회적 문제해결, 의존성 및 독립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3(2), 122-151.

- 김배성 (2004). **사주심리치료학**. 서울: 창해.
- 김영재 (2003). 역리점복을 경험한 내담자의 체험연구 : 역리점복의 상담적 현상에 대한 예비연구. **인간이해 제4호**, 서강대학교 학생상담생활연구소, 24-49.
- 김영재 (2004). **점복문화 배경의 여성 내담자를 위한 상담전략의 모색 : 근거이론적 접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희, 주은선 (2001). 내담자 변인과 상담형태에 따른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감 연구 :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51-77.
- 김정수 (2010).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서울: 소울메이트.
- 김정연 (2006). **도움 추구 태도와 귀인 양식 간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대 (1996). **점복의 역사**. 한국민속사업문. 서울: 연구사.
- 김주미 (2002). **심리적 불편감, 자기은폐, 사회지지망, 개인주의-집단주의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미, 유성경 (2007).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문화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91-1002.
- 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 (2008).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 **상담학연구**, 9(3), 961-986.
- 김철민 (2002). 운명 소비행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 운명관의 내용과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3(2), 75-89.
- 김철민, 이성수(2004). 운명소비행동의 선행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5(1), 1-19.
- 김태곤 (1995). **한국의 점복**. 서울: 민속원.
- 김태열 (2015년 4월 7일). 국민 10명중 4명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고 싶은 문제 있었다”. **헤럴드경제**. 2015년 4월 8일 검색,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407000482&md=20150407111351_BL
- 김혜영 (2007).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다차원적 완벽주의가 걱정에 미치는 영향 : 자율성 및 사회적 집단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주연 (2009). 사주학과 문학치료학의 상호보완. **문학치료연구**, 11, 29-50.
- 남숙경 (2010).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단축형 척도의 구인타당도 재점검. **상담학연구**, 11(3), 1007-1020.
- 남숙경, 이상민 (2012).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단축형 척도의 집단간 차이분석: 대상, 성별, 연령, 상담경험 유무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1), 341-366.
- 노안영, 송현중 (2006). **(상담실습자를 위한) 상담의 원리와 기술**. 서울: 학지사.
- 문무병 (1990). 제주도민의 민간신앙과 공동체. **월간제주**, 1990년 10월호, 제주: 월간제주사.
- 문무병 (1996). 제주도 무속(巫俗)의 보존방안. **분다 분다제주중앙클럽**.
- 문무병 (1999). 제주도 무속과 제주인의 종교심리. **문화와 현실**, 2, 17-38.
- 문창우 (2008). **제주지역 천주교인들의 점복에 대한 경험과 인식**.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수정 (2011). **추천자의 유사성에 따른 상담에 대한 태도형성과정 비교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용린 (2009). **지력혁명**. 서울: 비즈니스북스.
- 민법, 제4조 (2013).
- 박도순 (2004). **질문지작성방법론**. 경기: 교육과학사.
- 박석 (2013). **인문학, 동서양을 꿰뚫다**. 경기: 도서출판 들녘.
- 박소영 (2013). **인생이 잘 풀리는 여자**. 서울: 다산북스.
- 박예선, 황미구 (2008). 한국 상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발전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903-929.
- 박은경 (2008). **점복(占卜)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과 점복에 대한 태도에 따른 심리적 특성**.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 (1999). **나를 다시하는 동양학**. 서울: 바나리.
- 박홍순 (2014). **저는 인문학이 처음인데요**. 서울: 한빛비즈.
- 배윤주 (2010). **청소년의 귀인양식과 상담에 대한 태도가 상담요청 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민정 (2007). **정약용 철학의 형성과 체계에 관한 연구 : 주자학과 서학에 대**

- 한 비판적 수용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영채 (2013). **인문학 개념정원.** 경기: 문학동네.
- 성수진, 유순화 (2006). 개인주의-집단주의 및 귀인양식이 대학생의 전문적 도움 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사대학보 제45집**, 29-43
- 손나운 (2014). **어머니의 자기성찰 수준,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과의 관계 : 학령전기 발달지연 아동과 일반아동 비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난희, 김은정 (2007). 한국 사람들의 상담가에 대한 이미지. **상담학연구**, 8(2), 483-492.
- 송남두 (2014). 제주상담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제주상담학회소식 제19호**, 1(권두언)
- 송성대 (2001). (제주인의 해민정신/개정증보판)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제주문화 원류찾기 2. 제주: 도서출판 각.
- 송성대 (2010). **제주지리론.** 경기: 한국학술정보.
- 신경진 (2012). **상담의 과정과 대화 기법.** 서울: 학지사 (상담의 과정과 대화기법. 2010. 서울: 학지사에서 재인쇄)
- 신승환 (2010). **지금, 여기의 인문학.** 서울: 후마니타스.
- 신연희 (2004).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서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고찰.**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연희, 안현의 (2005).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서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17(1), 177-195.
- 신예지 (2013). **상담 효과 및 이용편의에 관한 후기가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재호 (2005). **초보상담자의 상담성과에 관한 질적분석 : 도움된 경험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정규 (2013). **매일 읽는 인문학.** 경기: 천지인.
- 신행철 (2004). **제주사회와 제주인.** 제주: 제주대학교 출판부.
- 안서연 (2015년 5월 18일). 제주도 이혼율 1위, 그 뒤에는 심각한 '가정폭력'. **제주도민일보.** 2015년 5월 25일 검색.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148>

- 안형근 (2002). 한국 문화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상담이론의 고찰. **공주영상정보 대학 논문집 제4권**, 331-347.
- 오수성 (1997). 한국 무속의 심리학적 이해. **현상과 인식**, 73, 149-162.
- 오진이 (2001). **굿의 치료적 과정을 적용한 상담모형의 구안**.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현수 (2012). **일반 내담자의 상담요청 결정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월스트리트저널 (2014). [WSJ특집] 가까이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행복, “너 어디 있니?” 2015년 3월 25일 검색, [Http://kr.wsj.com/posts/2014/11/22/](http://kr.wsj.com/posts/2014/11/22/)
- 유성경 (1998). 우울의 표현 및 상담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문화간 비교연구: 한국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간의 비교.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6,(1). 93-114.
- 유성경, 유정이 (2000).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과 상담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2(1), 19-32.
- 유성경, 이동혁 (2000). 한국인의 상담에 대한 태도에 관한 분석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55-68.
- 유성경 (2005). 한국 대학생의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에 대한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17-632.
- 유홍준 (2012). **나의 문화유산답사기7**. 경기: 창비.
- 이강미 (2008). **청년의 자존감이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염광교회를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호 (2005). **사회화와 주체성**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미경 (2010). **상담에 대한 양가태도집단의 특성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지 (2006). **낙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혜 (2007). 한국인의 정신건강 도움요청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7, 122-151.

- 이수현 (2000). **내담자에 따른 상담기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부영 (2012).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서울: 한길사.
- 이정은 (2010). **그녀들은 왜 점집에 갔을까?** 서울: 리브리언.
- 이재연 (2014). **중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학교 적응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 효과**.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용 (2008). **다산의 심성론과 수양론을 적용한 자기 성찰적 상담**.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우 (2014). **인문학명강**. 서울: 21세기북스.
- 이혜영 (2005). **한국대학생과 중국대학생의 우울증표현 및 상담태도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림, 강은희 (2004). 상담 전 교육이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태도, 지식, 정서 및 기대감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5(3), 493-503.
- 임봉영 (2005). **우리는 웃기는 리더를 존경한다**. 다산북스.
- 장성숙 (1999). 한국적 상담의 필요성: 현실역동 상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1(2), 19-33.
- 장성숙 (2005). 토속신앙과 상담의 관계: 점복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355-749.
- 장성숙 (2010). **한국인의 심리상담 이야기**. 서울: 학지사.
- 장성숙 (2015). **건강한 남자의 조건**. 2015년 5월 18일 검색,
<http://blog.naver.com/changss0312?Redirect=Log&logNo=220308207577&from=postView>
- 장윤진 (2012).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과 상담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진이 (2001). **자기은폐(self-concealment)와 정서 표현 성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 그리고 도움 추구 태도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엄 (2011). **나를 찾는 화엄경**. 서울: 리즈앤북.
- 정원식, 박성수, 김창대 (1999). **카운슬링의 원리**. 서울: 교육과학사.
- 정영혜 (2013). **자기성찰, 자기효능감, 학업성적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

- 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철, 양난미 (2010). 낙인과 자존감,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31-652.
- 조성윤, 현혜경 (2001). 제주지역 민간신앙과 점복. **제주도연구**, 20, 97-133.
- 조수철 (2000). 대인관계에 있어서 성찰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1(2), 179-185.
- 조혜정 (1992). **글 읽기와 삶 읽기 <1> 바로 여기 교실에서**.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주강현 (2012). **주강현의 제주도 이야기**. 서울: 아이세움.
- 진성기 (2008). **복을 비는 사람들**. 서울: 도서출판 디딤돌.
- 최길성 (1994). **한국 무속의 이해**. 서울: 예전사.
- 최상진, 한규석 (1998). 심리학에서의 객관성, 보편성 및 사회성의 오류: 문화심리학의 도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1), 73-96.
- 최운식 (1995). 점복신앙의 의미와 원리. **국제어문**, 16('95. 5), 363-371.
- 하정희 (2010).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의 관계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265-280.
- 한경선 (2003). **제주도 무속신화의 도덕 교육적 기능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갤럽 (2011). **한국인의 철학**.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한국갤럽 (2011). **갤럽리포트 한국인의 '행복'(세계 57개국 행복도 비교 조사)**.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 (2012). **왜 철학상담인가?** 서울: 학이사.
- 한병철 (2012).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지성사.
- 현길언 (2001). **제주문화론**. 제주: 탐라목석원.
- 홍수연 (2005). **운명! 따를 것인가 바꿀 것인가**. 서울: 복인.
- 홍희기 (2002). **한국적 상담이론의 정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주연 (2011). **자기성찰 척도개발 및 자기관과 자기성찰, 안녕감간의 경로모형 검증**.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村山智順 (1991). **조선의 점복과 예언**. (김희경 역). 서울: 동문선.

- Atkinson, D. R. & Gim, R. H. (1989). Asian-American cultural identity and attitudes toward mental health services. *Journal of Sounseling Psychology*, 42, 663-668.
- Calhoun, L. G. & Tedeschi, R. G. (2015). **외상 후 성장. 상담 및 심리치료에의 적용.** (강영신, 임정란, 장안나, 노안영, 역).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2013).
- Carkhuff, R. R. (1969). *Human and helping relations*. (Vols. 1 & 2).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Carkhuff, R. R. & Anthony, W. A. (1979). *The skills of helping: An introduction of counseling skills*. awherst, MA: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Corrigan, P. W. (2004). How stigma interferes with mental health are. *American Psychologist*, 59(7), 614-625.
- Cramer, K. M. (1999). Psychological antecedents to help-seeking behavior: A reanalysis using path modeling structur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381-387.
- Crane, T., Prinz, J., Morton, A., Cottingham, J. G. Almond, B. & Wolff, J. (2008). **철학(더 나은 삶을 위한 사유의 기술).** (강유원, 김영건, 석기용, 역). 서울: 유토피아. (원서출판 2004).
- Dewey, J. (1933). *How We Think: A Restatement of Reflective Thinking to the Educative Process*. Boston: D. C. Heath. (원서출판 1910).
- Edelman, N. (2008). **점술과 심령술의 역사.** (류재화, 역). 서울: 에코리브르. (원서출판 2006).
- Fischer, E. H., & Turner, J. I. (1970). Orientations to seeking professional help: Development and research utility of an attitude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5(1, Part 1), 79-90.
- Fisher, J., Nadler, A., & Whitcher-Alagna, S. (1982). Recipient reactions to aid. *Psychological Bulletin*, 91, 27-54.
- Gardener, H. (2001). **다중지능 인간 지능의 새로운 이해.** (문용린, 역). 경기:

- 김영사. (원서출판 2000).
- Gardener, H. (2007). **다중지능(하워드 가드너)**. (유경재, 문용린, 역). 서울: 웅진 지식하우스. (원서출판 2006).
- Hinson, J. A., & Swanson, J. L. (1993). Willingness to seek help as a function of self-disclosure and problem severit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1*, 465-470.
- Jennifer Michael Hecht (2009). *The Happiness Myth: An Expose*. Harper Collins Publishers.
- Krishnamurti (2015). *The Flight of the Eagle*. Random House.
- Kushner, M. G., & Sher, K. J. (1991). The relation of treatment fearfulness and psychological service utilization: An overview.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0*, 196-203.
- Leaf, P. J., Bruce, M. L., & Tischler, G. L. (1986). The differential effect of attitudes on the use of mental health services. *Social Psychiatry, 21*, 187-192.
- Lopez, F. G., Melendez, M. C., Sauer, E. M., Berger, E., & Wyssmann, J. (1998). Internal working models, self-reported problems, and help-seeking attitude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79-83.
- Maniar, S.D., Curry, L. A., Sommers-Flanagan, J., & Walsh, J. A. (2001). Student-Athlete Preferences in Seeking Help When Confronted With Sport Performance Problems. *The Sport Psychologist, 15*, 205-223.
- Rogers, C. (2014). **진정한 사람되기**. (주은선, 역). 서울: 학지사. (진정한 사람되기. 2009. 서울: 학지사에서 재인쇄) (원서출판 1961).
- Spielberger, C, D. (1972). *Anxiety as an emotional state*. In C. D. Spielberger, *Anxiety and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 Tessler, R. C., & Schwartz, S. H. (1972). Help seeking,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An attributio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 318-326.

- Vogel, D. L., Wester, S. R. & Larson, L. M. (2007) Avoidance of Counseling: Psychological Factors That Inhibit Seeking Help.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5, 410-422.
- Vogel, D. L., & Wester, S. R. (2003). To seek help or not to seek help: The risk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351-361.
- Vyse, Stuart A. (1997). *Believing in Magic - The Psychology of Superst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Ying, Y., & Miller, L. S. (1992). Help-seeking behavior and attitude of Chinese Americans regarding psychological problem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 549-556.
- Yuji Yoshioka (2015). **세상의 모든 생각**. (박재현, 역). 서울: 씨앤아이북스. (원서출판 2012).

<Abstract>

**Effects of Self-reflection
on the Attitude toward Divination
and the Attitude toward Counseling
- Especially in Jeju -**

Yang, Jeong Eun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Major Advisor : Prof. Kim, Sung B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itude toward divination and the attitude toward counseling,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self-reflection on the attitude toward divination and the attitude toward counseling. This research for this study was conducted especially in Jeju.

Three hundred and sixth three people (156 men and 207 women)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Each participant received a package of the instruments; The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Short Form(ATSPPH-SF)(Fisher & Farina, 1995), the Divination Attitude Scale(Park, 2008), and the Self-Reflection Scale(Hwang, 2011).

To analyze collected data,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attitude toward divination and the attitude toward counseling. According to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self-reflection showe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attitude toward divination and the attitude toward counseling.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At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attitude toward divination and the attitude toward counseling, so counselors need to apply the skills or approaches considered fit to the clients with divination culture-background appropriately according to the clients. The need to publicize counseling to the people who favor divination is also suggested.

Secondly, the lower the self-reflection was, the higher the attitude toward divination was and the higher the self-reflection was, the higher the attitude toward counseling was. The result shows, some programs or educative process that are able to raise the self-reflection of potential clients are needed to increase the counseling service use.

부 록 목 차

부록1. 짐복에 관한 태도 설문지	68
부록2. 상담에 대한 태도 설문지	70
부록3. 자기성찰 설문지	71
부록4. 인구통계학적 질문 설문지	72

설 문 지

NO. _____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대학원생입니다. 석사 논문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설문지는 제주도 성인의 점(占)과 상담에 대한 태도, 그리고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 내용에는 맞고 틀림이나 좋고 나쁨이 없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솔직히 답해 주신다면 제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이 하나라도 빠진 설문지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끝까지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처리로만 활용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연구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양 정 은 (인)

E-mail: mailwatta@naver.com

[점(占)에 대하여]

- ▣ 각 문항을 읽고, 평소 자신의 점(占)에 대한 생각과 가장 가까운 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占)이란 신점, 사주, 관상, 궁합, 토정비결, 손금, 타로, 별점 등을 포함합니다.)

문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점(占)을 통해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	1	2	3	4
2	점복자(점쟁이)들이 하는 말은 대부분 말장난 내지 속임수다.	1	2	3	4
3	내가 말하지 않은 사실을 점복자(점쟁이)는 알아맞힐 수 있다.	1	2	3	4
4	점(占)이 맞는 것은 우연에 지나지 않는다.	1	2	3	4
5	점(占)을 통해 사람의 성격이나 특징 등을 알아낼 수 있다.	1	2	3	4
6	비합리적인 사람이 점(占)을 본다.	1	2	3	4
7	운은 어느 정도 정해져있다.	1	2	3	4
8	점(占)은 모두 상술이다.	1	2	3	4
9	사주와 같은 점(占)은 과학적(통계적) 근거가 있다.	1	2	3	4
10	어수룩한 사람이 점을 믿는다.	1	2	3	4
11	잘 알아맞히는 용한 점복자(점쟁이)가 있다.	1	2	3	4
12	점(占)은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 본다.	1	2	3	4
13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점을 본다.	1	2	3	4
14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점을 볼 의사가 있다.	1	2	3	4
15	점복자(점쟁이)가 알려주는 대로 따를 것이다.	1	2	3	4
16	점복자(점쟁이)가 권한다면 부적을 사겠다.	1	2	3	4
17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면 점복자(점쟁이)의 조언을 구하겠다.	1	2	3	4
18	유명한 점복자(점쟁이) 또는 점집을 수소문하기도 한다.	1	2	3	4
19	혼사 등 중요한 일이 있다면 비용이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점(占)을 보러 가겠다.	1	2	3	4
20	점복자(점쟁이)의 실력이 의심된다면 다른 점복자(점쟁이)에게 가보겠다.	1	2	3	4
21	아는 점집 또는 점복자(점쟁이)가 있다.	1	2	3	4
22	점(占)보는 것은 재미있다.	1	2	3	4
23	점(占)보는 것은 해가 된다.	1	2	3	4
24	점(占)의 신비로움이 매력적이다.	1	2	3	4
25	점(占)보는 것이 좋다.	1	2	3	4
26	점(占)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	2	3	4
27	점(占)보는 것은 건전하다.	1	2	3	4
28	점(占)보는 것은 어리석다.	1	2	3	4
29	점(占)보는 것은 도움이 된다.	1	2	3	4
30	점(占)보는 것은 창피하다.	1	2	3	4
31	점(占)보는 것은 죄책감이 든다.	1	2	3	4

▣ 다음은 귀하의 점복 추구 경험 및 의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점(占)을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___① 예 ___② 아니오

2. 귀하는 앞으로 점(占)을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___① 예 ___② 아니오 (‘예’라면 3번, ‘아니오’라면 다음 장으로 가주세요)

3.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점(占)을 통해 도움을 얻으실 의향이 있습니까?

(복수응답이므로 해당되는 것은 모두 선택해 주세요.)

___① 가족 (부부, 자녀, 부모 등)

___② 경제 (사업, 금전 등)

___③ 대인 관계 (친구, 동료 등)

___④ 법적 갈등

___⑤ 신체 건강

___⑥ 이성 관계 (커플, 궁합, 성 등)

___⑦ 자기이해, 성격

___⑧ 정신건강 (우울, 불안, 정서적지지 등)

___⑨ 직업 문제 (취직, 이직, 진로 등)

___⑩ 택일, 작명, 풍수

___⑪ 학습 문제 (시험, 학습, 성적 등)

___⑫ 기타: _____

[상담에 대하여]

▣ 각 문항을 읽고, 평소 자신의 상담에 대한 생각과 가장 가까운 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만약 정신적인 문제로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나는 우선 전문적인 도움을 구할 것이다.	1	2	3	4
2	자신의 문제를 상담자와 의논하는 것은 정서적인 갈등을 해결하는데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1	2	3	4
3	만약 내가 현재 심각한 정서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면 상담으로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1	2	3	4
4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갈등이나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사람의 태도는 존경할 만하다.	1	2	3	4
5	만약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불안과 걱정으로 고통 받았다면 상담과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겠다.	1	2	3	4
6	나는 언젠가 심리적인 문제로 상담을 받기 원할지도 모른다.	1	2	3	4
7	정서적인 문제(예: 우울, 불안, 분노 등)를 가진 사람은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8	상담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볼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1	2	3	4
9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상담을 받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1	2	3	4
10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정서적인 어려움도 저절로 해결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 다음은 귀하의 상담 추구 경험 및 의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상담을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___① 예 ___② 아니오

2. 귀하는 앞으로 상담을 받으실 의향이 있습니까?

___① 예 ___② 아니오 (‘예’라면 3번, ‘아니오’라면 다음 장으로 가주세요)

3.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얻으실 의향이 있습니까?

(복수응답이므로 해당되는 것은 모두 선택해 주세요.)

- | | |
|---------------------------|-----------------------------|
| ___① 가족 (부부, 자녀, 부모 등) | ___② 경제 (사업, 금전 등) |
| ___③ 대인 관계 (친구, 동료 등) | ___④ 법적 갈등 |
| ___⑤ 신체 건강 | ___⑥ 이성 관계 (커플, 궁합, 성 등) |
| ___⑦ 자기이해, 성격 | ___⑧ 정신건강 (우울, 불안, 정서적지지 등) |
| ___⑨ 직업 문제 (취직, 이직, 진로 등) | ___⑩ 택일, 작명, 풍수 |
| ___⑪ 학습 문제 (시험, 학습, 성적 등) | ___⑫ 기타: _____ |

[나와 타인에 대하여]

▣ 아래의 문항들을 잘 읽고 평소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화가 나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생각해 본다.	1	2	3	4	5
2	나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짜증이 나는지 알아보려 한다.	1	2	3	4	5
3	불안할 때 이전의 어떤 경험들과 관련 있는지 생각해 본다.	1	2	3	4	5
4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경험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다.	1	2	3	4	5
5	화가 날 때 내가 왜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지(했는지) 생각해 본다.	1	2	3	4	5
6	화가 났던 마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나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된다.	1	2	3	4	5
7	내가 하는 걱정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한다.	1	2	3	4	5
8	내가 겪는 경험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발견하곤 한다.	1	2	3	4	5
9	기분 나쁜 상황에서 내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생각해 보며 미처 몰랐던 나의 기대나 두려움을 알게 된다.	1	2	3	4	5
10	힘든 일을 겪으면서 나에게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적이 있다.	1	2	3	4	5
11	상대방과 생각이 다를 때 그가 내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생각해 본다.	1	2	3	4	5
12	상대방이 맘에 들지 않을 때 우리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1	2	3	4	5
13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때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1	2	3	4	5
14	상대방과 갈등이 생길 때 그는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1	2	3	4	5
15	상대방에게 서운할 때 상대방이 보인 태도가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본다.	1	2	3	4	5
16	상대방과 의견 충돌이 생길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방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1	2	3	4	5
17	상대방이 보인 행동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면 그의 마음이 심정적으로 이해가 간다.	1	2	3	4	5
18	상대방도 나와 같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를 탓하는 일이 줄어들었다.	1	2	3	4	5
19	상대방과 의견이 달라도 마음 편하게 그를 배려한다.	1	2	3	4	5
20	상대방과의 갈등에 대해 깊이 이해해 봄으로써 그 갈등에 대해 달리 바라본다.	1	2	3	4	5

* 다음 장에도 있습니다.

[일반사항]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____① 남 ____② 여

2. 연령: ____① 20대 ____② 30대 ____③ 40대 ____④ 50대 ____⑤ 60대 ____⑥ 70대 이상

3. 종교: ____① 가톨릭 ____② 기독교 ____③ 불교 ____④ 무교 ____⑤ 기타()

4. 소재지: _____ 동(예: 삼도 2동)

5. 귀하께서는 제주도가 고향이십니까? ____① 예 ____② 아니오

참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혹시 응답되지 않은 문항이 있는 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나날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